Vol.182

July
August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Special theme

오직 환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Avengers: HY Doctors 4

마음까지 지켜드립니다 '유방암'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기획상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 대한의사협회 원보콘테스트'
동상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

'2010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대상

즐거운 편지

눈부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덥고 습한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집 밖에 나가기 힘들 만큼 한낮의 태양은 뜨거운 기운을 가득 품고 있지만, 가끔 불어오는 바람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초여름을 지나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의 더위도 즐거움과 활기찬 젊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눈부신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7+8월 호에서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다학제'를 스페셜 테마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여성에서 발병률 1위인 암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젊고, 미혼인 여성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병변의 외과적인 절제술입니다. 하지만 유방 보존술이나 복원술, 재건술 등을 고민할 수 있고, 수술 후유증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학제가 필요합니다. 유방암 치료 후 환자의 여성성과 모성까지 생각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닥터 히어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anyang Topic에서는 입원을 앞둔 입원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소한 '한양대학교병원 입원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Dynamic Hanyang에서는 볼링공처럼 단단한 믿음을 바탕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지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볼링 동호회 'Ball & Pin'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볼링의 출구 없는 매력에 대해 들어봅니다.

상당히 덥습니다만 어제보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형중



마음까지 지켜드립니다

'유방암'

전 세계 여성암 1위 유방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젊은 여성의 경우 단순 암 치료를 넘어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치료해야 한다. 수술을 통한 암 제거, 유방의 보존, 후유증 관리와 더불어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유방암 다학제 진료를 알아본다.







contents

Vol. 182 2023 July / August

02 **즐거운 편지** 눈부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송창면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08 **미래의학 프론티어** 전대원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12 **Dynamic Hanyang**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볼링 동호회 'Ball & Pin'

18 **Special theme ❶** 환자별 맞춤형 유방암 치료

20 **Special theme ❷** 환자의 마음까지 고려한 유방재건술

22 **Special theme ❸** 젊은 여성 환자도 임신·출산 걱정 없도록

24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병원 입원지원센터

28 **주목할 만한 연구** 노인에서 텔로미어 길이 단축과 초기 주관적인 인지 불만과의 상관관계

30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 황선규의 크론병

32 **베스트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34 **Dr. Opera** 조아키노 로시니 오페라 〈렝스로의 여행〉

36 **Dr. Movie** 리더의 품격,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38 **예술과 의술의 만남** 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와 뇌졸중

40 **고마운 당신에게** 최영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42 **언론 속 한양인**

44 **한양뉴스**

46 **Hihy 건강저장소**

48 **발전기금**

50 **이달의 이슈**

51 **외래진료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3년 7월 6일 통권 182호 **발행인** 이형중 **편집인** 노성원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디자인** 김미진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 혹은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모델: 한양대학교의료원 캐릭터 HY-Leo(하이레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정교하고 섬세하게, 환자 마음 읽는 의사





송창면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비인후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분야이다.
섬세한 손길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천직이라 느끼며,
환자 삶의 질까지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료하는 송창면 교수를 만났다.



환자에게
친근하고 다정한 의사

긴급수술 후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오는 그의 첫인상은 전형적인 의사와는 다른 느낌이다. 개구쟁이 어린아이 같은 미소와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빛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빗장을 풀고 스르르 다가가게 만드는 듯했다. 실제로도 그는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친근한 의사로 소문나 있었다.

"원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저는 환자들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환자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면서 환자들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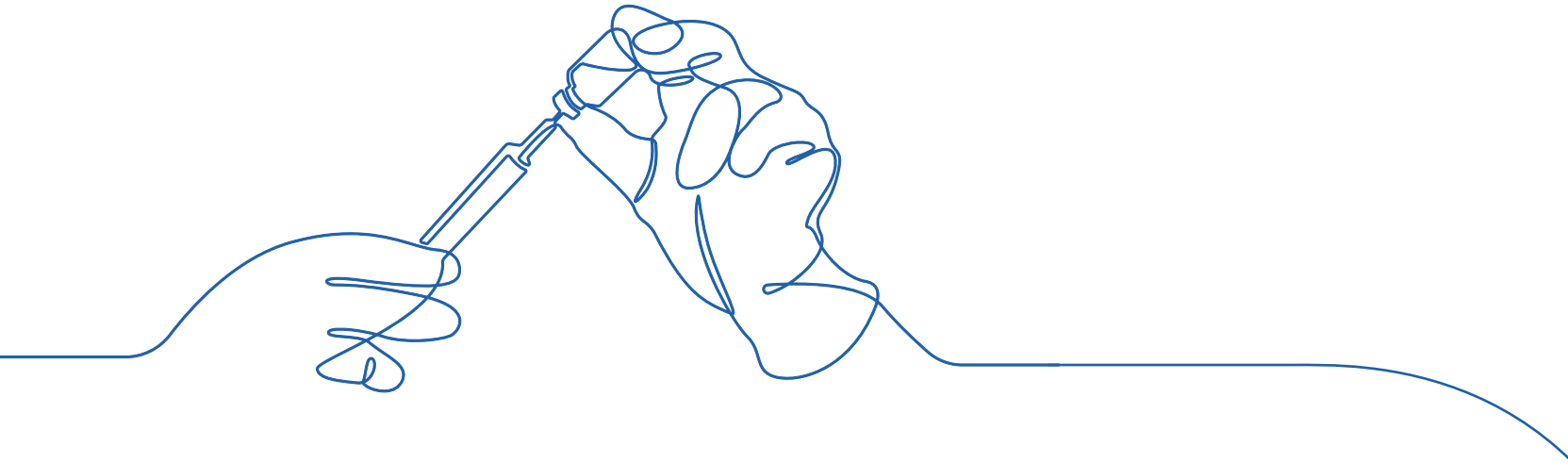
10여 년 전 한양대학교병원과 인연을 맺은 송창면 교수. 그에게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묻는 질문에 잠깐 망설이는 듯하다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과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미술을 전공 할 만큼의 재능이 있지는 않았어서(웃음) 들었던 생각이 '그럼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자, 의사 중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섬세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의대에 진학하고 이비인후과 임상강사로 있을 때, 감사하게도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님께서 두경부외과 전문으로 저를 추천해 주셔서 한양대학교병원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진료과에서 필요한 덕목이 정교하고 섬세함일 텐데 수많은 진료과 중에서 이비인후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진다.

"앞에 말씀 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비인후과는 숨 쉬고, 말하고, 먹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듣는 기관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에요. 이 부위에 질환이 생기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중 두경부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에도 사람마다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어떤 이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두경부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 수술적으로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수술하는 의사와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비인후과가 섬세하고 정교한 진료과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과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진료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귀, 코, 목을 진료한다. 그중에서도 송창면 교수의 전문 분야는 목, 즉 두경부이다. 구강, 인두, 후두, 경부, 갑상선 등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수술적 치료가 많은 편이다.

"후두, 인두, 경부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인두는 식도와 후두에 붙어있는 근육성 기관이고요. 후두는 목구멍 깊은 곳에 발성을 담당하는 성대와 그 위아래의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성대에 혹이나 결절, 낭종, 암이 생기거나 성대의 운동 장애가 생기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성대의 질환이 후두질환이고, 이를 주로 치료하고 있어요. 또 갑상선암, 두경부암 수술도 많은 편이고요."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록 송창면 교수가 왜 이비인후과에서 섬세하고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됐다.

최근 송창면 교수는 미국으로 장기 연수를 다녀왔다. 성대와 성대 근육에 생기는 후두질환과 삼키는데 장애가 생기는 삼킴 장애 환자에 대한 최신 치료법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연수 후 한국에 돌아와 더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임하게 됐다고.

"목에 불편감이 있거나 삼키는 데 불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없는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음성 검사와 삼킴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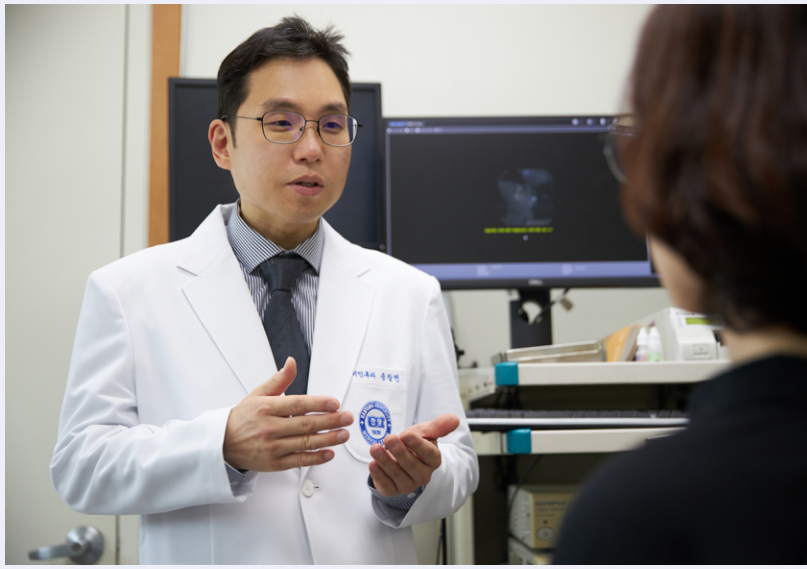


환자와 소통하는 의사 되고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중요한 질환을 진단하고, 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치료 및 수술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이다. 특히, 갑상선암이나 두경부암 환자들은 암 자체를 치료하는 것만큼 환자의 심리 상태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사실 갑상선암이나 두경부암은 수술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만, 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가 주는 공포나, 치료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이다.

"치료를 잘하는 것도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갖는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환자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 "치료를 잘하는 것도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갖는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의사

송창면 교수의 힐링 스폿은 공원. 서울·경기 지역의 공원은 안 가 본 곳이 없고, 미국 연수 시절에도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가봤을 정도라고. 송 교수가 이토록 공원에 푹 빠지게 된 매력은 무엇일까.

"공원을 걷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초록이 가득한 공원을 걸으면 에너지가 충전돼 환자에게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게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송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어 송 교수는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 식사는 무엇을 드셨는지, 주말엔 어떤 일을 하시며 시간을 보냈는지 등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환자와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쌓고 싶어요. 공원 산책을 하면서 얻은 좋은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치료나 수술 이후의 예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웃음)"

마지막으로 송창면 교수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고 전했다.

"목이나 이비인후 어디든 불편감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문을 두드려주세요."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비알코올지방간 환자들을 구원해 줄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다

전대원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새로운 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④

비알코올지방간은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간 환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여 먹는 약, 주사제 개발은 오랫동안 이루어져왔지만 비알코올지방간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주면 교정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전대원 교수.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전대원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만났다.



Q. 교수님의 전문 진료 분야인 간염, 간암, 지방간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신 업적 중 자랑할 만한 연구성과를 소개해주세요.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비알코올지방간'입니다. 비알코올지방간은 말 그대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생기는 지방간을 이야기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간질환 중 제일 흔합니다. 운동 부족, 비만, 당뇨병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한 우물만 팠다고 말할 수 있죠(웃음).

지방간 치료 약물을 만드는 데 있어 초기 물질 발굴-세포실험-동물실험-임상1상-2상-3상까지 실험을 합니다. 전 주기를 걸치는데에는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연구팀이 최초로 1상, 2상까지 임상시험을 성공했고, 현재 동물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다 참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성과보다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임상시험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례로 4년 전 한양대학교병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어 신약 개발 공동 연구로 약을 만들어 현재 사람과 비슷한 간을 가진 인간화 마우스 동물실험 중입니다. 이것은 연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꽤 많이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간화 마우스 동물실험에 성공하면 사람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Q. 교수님께서 최근 한양생명과학기술원 바이오신약 혁신기술 연구센터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양과학기술원 바이오의학 혁신기술 연구센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의과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이 같은 캠퍼스 내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양대학교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강점을 살려서 병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대, 자연대에 있는 연구진이 함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이오신약 혁신기술 연구센터'라는 말이 거창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는 약물, 주사제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과나 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분야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약으로만 접근했을 경우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생활습관을 고쳐주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과 최신의 방법, 두 분야를 융합하고 촉진하기 위한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가 활성화되려면 '디지털'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걸 의료진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 자연대 교수님들과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바이오신약 혁신기술 연구센터와 가지랩이 비알코올지방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진행과 관련한 MOU를 맺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알코올지방간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엇인지, 이 MOU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 30%가 비알코올지방간을 앓고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병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있습니다. 또 모든 환자에게 주사나 약물 치료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비알코올지방간의 원인은 비만, 당뇨인 만큼 심하지 않은 환자는 폭식이나 식습관 등 잘못된 인지 행동 교정을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등의 생활습관을 교정하려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바일 핸드폰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고 치료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치료제라고 하면 과거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떠올립니다만 요즘은 치료의 효과를 가진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병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2년 전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프로그램 앱 기반으로 비알코올지방간에 대한 교육 시행과 동시에 인지 행동을 교정하는 국가연구 과제를 수주했고,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는 환자가 먹는 음식을 사진 촬영하면 자동으로 칼로리와 음식 정보가 기록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먹는 것을 조절해야겠다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앱 사용 후 두 달 반 정도가 됐을 때 3~4kg의 체중 감량이 유도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간이나 양이 같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개인 데이터 베이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음식의 칼로리나 양이 대중적으로 비슷해집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공격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가지랩'과 MOU를 맺었고요. 또한 '바이오 뉴트론'이라는 회사와 지방간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신약 승인(IND, Investigational New Drug)을 받은 상태입니다.

Q. 진료만으로 바쁘실 텐데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아울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힘든 일이 발생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취미 활동의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낚시, 바둑, 등산, 운동 등을 좋아서 취미로 하시는 것처럼 저는 연구를 좋아해요. 특이하죠? (웃음).

어떤 취미 활동이든 연구이든 모든 것이 직선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처럼 한 단계 올라가고 변화가 없다가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반복하기 때문에 연구가 잘 안되거나 힘들 때는 계단의 평평한 부분이라고 여기면서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믿죠. 지금 조금 힘들고, 도저히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르게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의사로서 연구자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포부를 이야기해주세요.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약, 치료제를 개발하고 약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상용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 좋은 연구 밑바탕이 되고 싶어요. 연구라는 것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 제가 잘 다져놓은 시스템(토양,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안에서 다음 세대 후배 연구자들이 제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조금 적게 하고 한 발 더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를 취미라고 말하며 그야말로 즐겁게 연구에 매진하는 전대원 교수. 그가 꿈꾸는 디지털 치료제와 신약개발을 통해 지방간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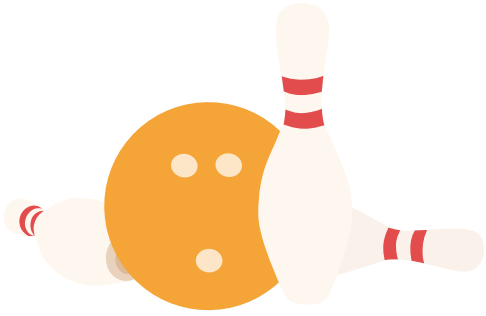
볼링공처럼 단단한 믿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볼링 동호회 Ball & Pin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단단한 믿음으로 똘똘 뭉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볼링 동호회 Ball & Pin.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처럼 끈끈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이들을 만났다.



(좌측부터) 원무팀 최재범 계장, 내과 외래 안은진 계장, 병리과 김경철 계장, 정지원 회원(시설팀 협력업체 김동신 실장 가족), 병리과 김태근 계장, 고객지원팀 김미화 계장, 내과 외래 최미선 계장, 시설팀 협력업체 김동신 실장



스트라이크가 주는 쾌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볼링 동호회인 Ball & Pin은 1995년 병원의 개원과 함께 시작됐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이직하신 분들 중 볼링에 애착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다가 2015년 소모임을 만들었고, 2017년 회칙을 정하면서 정식 동호회로 발족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해서 가장 회원 수가 많았을 때는 22명으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한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흐지부지되면서 지금은 10명 소수 정예 멤버만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열기만큼은 대형 동호회 못지 않다. 창단자인 원무팀 최재범 초대 회장은 입사하던 1995년부터 지금까지 볼링 동호회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핀이 쓰러질 때 쾌감은 느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경쾌한 소리가 정말 짜릿해요.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일하다가 화가 나고 짜증났던 순간도 잊게 되고요.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죠. Ball & Pin에 신입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전처럼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개의 핀이 하나를 이루듯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무부서, 근무 시간대가 다르기때문에 병원 내에서 만나기 어렵고, 소통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Ball & Pin 멤버들은 볼링핀 10개가 하나를 이루듯, 동호회 멤버들은 똘똘 뭉친다.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하는 등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실제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병원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다"라고 10명의 회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병리과 김태근 현 회장은 Ball & Pin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부서에서 일해도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타 부서의 경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 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병원에서 본인이 느끼는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없는지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힘들고 지칠 때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일지도 몰라요."

비슷한 관심사로 뭉치는 동호회 활동은 회사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 같은 존재랍니다.

함께하는 재미, 커지는 행복

모든 레인에서 쉴 새 없이 볼링공이 굴러가고, 핀이 쓰러지는 등 볼링장 내 북적북적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를 한 경우에는 환호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즐거움은 더 커진다. 이런 게 볼링의 묘미일까.

Ball & Pin은 한 달에 두 번의 정기 모임을 갖고, 한 번 모일 때마다 3게임씩 진행한다. 스포츠는 모름지기 이벤트가 있어야 승부욕도 더 자극이 되고 재미있는 법. 저녁 혹은 커피 내기 타이틀 대항전, 전년도 게임 기록을 합산해 가장 기록이 많이 향상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볼링의 즐거움이 배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재범 계장을 비롯한 경력자들이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실력 향상을 도와주니 행여 애버리지가 잘 안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설팀 협력업체 김동신 실장은 "어떤 분야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무엇보다 귀중한 정보와 자료가 되잖아요. 혼자서 얻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 등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폼 교정이나 몸의 움직임 등 이론적인 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 없는 매력으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다



병리과 김경철 계장은 "볼링이 생활 스포츠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허들이 낮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많은 회원들이 즐기지 않는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볼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내과 최미선 회원은 볼링 예찬론을 펼쳤다.

"사람들이 처음엔 볼링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몇 번 해보고 생각과 달라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볼링이 전신운동이라 은근 운동량이 많아요. 특히 사람 몸의 중심인 코어 운동에 그만이에요. 몸이 바로 서니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동호회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니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그러니 동호회 활동을 그만 둘 수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을 굴려 핀을 맞추는 운동이라 생각했는데 전신운동, 특히 코어 운동이라고 하니 볼링에 관심이 생기며 솔깃해진다. 이런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김태근 계장이 Ball & Pin 활동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게임도 중요하고, 개인의 애버리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Ball & Pin의 목표는 서로에 대한 믿음, 친목 도모를 다지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동호회 활동은 물론, 일할 때도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Ball & Pin 회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화끈하게 동호회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볼링을 즐기는 TIP

병리과 김태근 계장 | "음주 볼링은 노!"



요즘 락볼링장이라고 하여 술을 마시면서 볼링을 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음주 볼링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볼링을 칠 수 없어서 위험해요.

원무팀 최재범 계장 | "준비운동은 필수"



공에 손가락을 끼고 던져 핀을 맞추는 운동이 아니라 온몸, 특히 코어의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준비운동은 필수에요. 의외로 허리, 척추에 부상을 입기 쉬워요. 운동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관절을 풀어주세요.

시설팀 협력업체 김동신 실장 | "폼 교정받기"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은 피와 살이 됩니다. 혼자 할 때 잘 안되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실력 향상은 덤, 안전한 볼링을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내과 외래 최미선 계장 | "손톱정리 하세요!"



볼링공 안에 손가락을 직접 넣고 빼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일아트를 한 손톱이나 손톱이 길면 공을 던지는 순간 손톱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손톱을 정리해 주세요.

고객지원팀 김미화 계장 | "즐기는 마음으로"



애버리지를 올리고 싶어서, 승부에 집착하면 온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서 부상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볼링 자체를 즐겨주세요. 즐기다 보면 점수는 따라오게 된답니다.

병리과 김경철 계장 | "나에게 맞는 공 무게"



무거운 공을 들면 볼링을 잘 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팔을 롤링할 때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고, 볼링공을 잡을 때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나에게 맞는 공을 찾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본인 몸무게의 1/10 정도 되는 게 적당해요!

내과 외래 안은진 계장 | "볼링화에 습기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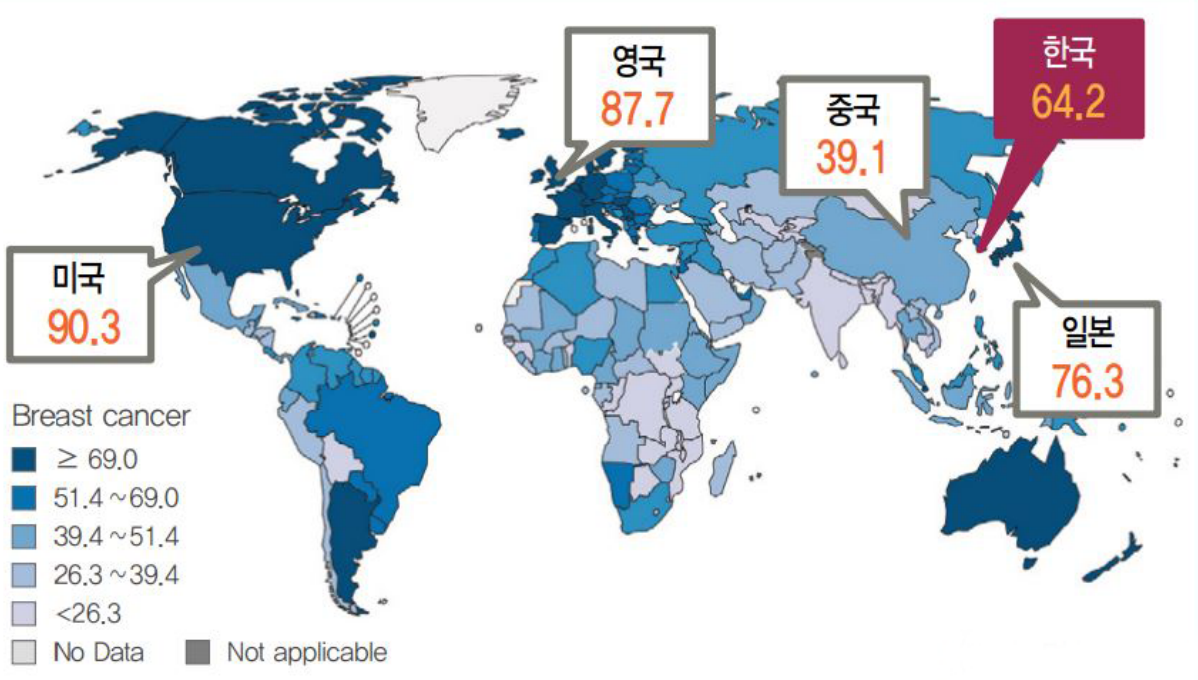


등산 갈 때 등산화를 신는 것처럼 볼링을 칠 때도 볼링화를 신는 게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볼링화에 습기가 있다면 미끄러짐 상태가 없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습기는 꼭 제거해 주세요.

마음까지 지켜드립니다
'유방암'

**전 세계 여성암 1위 유방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젊은 여성의 경우 단순 암 치료를 넘어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치료해야 한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 수록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지지만, 유방은 여성에게 중요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체기관으로 암으로 인해 상실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수술을 통한 암 제거, 유방의 보존, 후유증 관리와 더불어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유방암 다학제 진료를 알아본다.**

전세계 유방암 연령표준화 발생률(2020)(단위 : 명 / 10만명)



*한국의 경우 유방암은 10만 명당 64.2명이 발생해, 아시아 국가 중 발생률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출처: 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백서(2022)

유방암 진행에 따른 병기 구분 및 생존율

출처: 한국유방건강재단

비침윤성 유방암(상피내암)

초기 — 생존율 **98.3%**

종양크기 2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 없음

1기 — 생존율 **96.6%**

종양크기 2~5cm 심하지 않은 림프절 전이 있음 or 종양크기 5cm 이상이고 림프절 전이 없음

2기 — 생존율 **91.8%**

종양크기 5cm 미만 림프절 전이 있음 or 종양크기 5cm 이상이고 림프절 전이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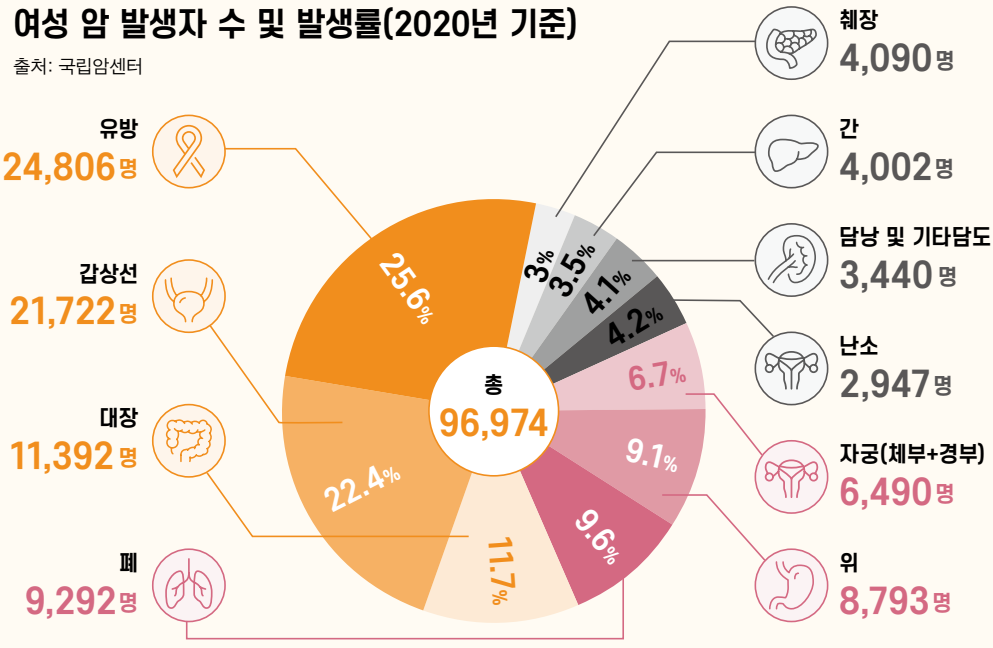
3기 — 생존율 **75.8%**

폐, 뼈, 간 등 다른 장기로의 전이

4기 — 생존율 **34.0%**

여성 암 발생자 수 및 발생률(2020년 기준)

출처: 국립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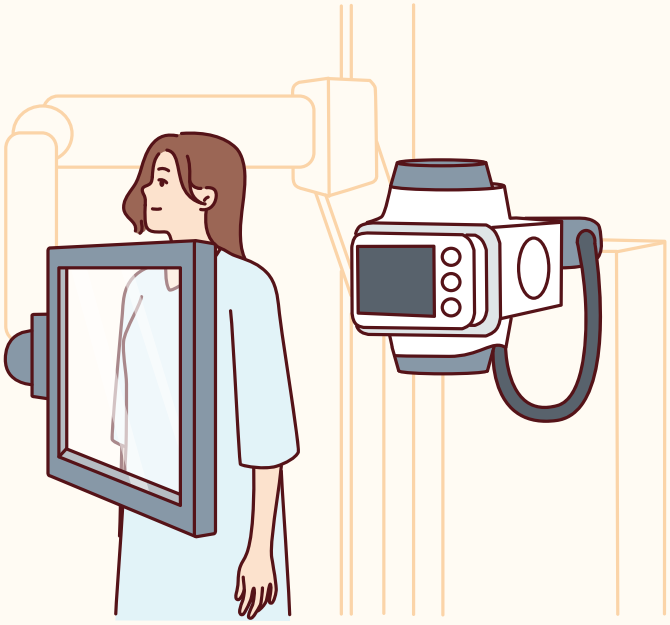




01 마음까지 지켜드립니다 유방암

환자별 맞춤형 유방암 치료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수술) 방법



유방암이란?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관과 유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일컫는데 유방암은 유방 구성조직 어디든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암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방암의 진단

1 자가검진

자가검진은 자신의 유방을 스스로 만져 보아 멍울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유방 자가검진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5~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이다. 자궁제거술을 받았거나 폐경이 된 여성은 매월 특정 날짜를 정해 잊지 말고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2 진단 검사의 종류

유방촬영술 유방 질환 진단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조기 유방암의 병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은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아 유방촬영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 초음파 검사의 병행이 필요하다.

유방초음파검사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소견에서는 유방 촬영술로는 종괴를 관찰하기가 어려울 때 초음파 검사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악성의 소견이 의심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악성종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유방 MRI검사는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정밀한 검사이며,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방촬영술이나 유방초음파의 시행 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유방암의 병변 및 절제범위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병기를 판정할 때, 선행 항암치료 시행시에 반응도를 확인하거나 수술 후 암세포의 잔존 및 재발의 여부를 평가할 때도 시행 가능하다.

3 유방병변 조직검사

유방영상검사에서 악성의 소견이 의심이 되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을 때 암을 확진하는 최종적인 방법이다. 조직 검사 결과는 유방암으로 진단될 경우 조직학적 유형과 등급의 결정은 물론, 암

글. **김형석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유방암은 유방 구성조직 어디든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암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다.
유방암의 대부분은 유관과 유엽에 있는 세포, 그중에서도 유관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며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포의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감별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생검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있어 총생검(gun biopsy 또는 core biopsy)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국소 마취 하에 1~2mm 정도 피부를 절개하고 생검용 바늘을 삽입해 검체를 3~5회 채취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진공흡입보조절제술 초음파 영상의 유도하에 굵은 바늘을 병소에 넣고 진공 흡입기를 작동해 바늘 안으로 조직을 끌어들인 후 바늘 내부의 회전칼을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병변을 잘라 시행한다. 암이 의심되는 경우엔 조직검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병변이 작은 크기의 양성 종양을 제거할 수 있어서 양성 종양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❹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는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포함한다.

유방 수술

❶ 유방보존술

유방보존술은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며, 수술 시 유방암을 포함하면서 정상조직을 일부 포함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절제한다. 반드시 방사선치료가 뒤따라야 국소 재발을 줄일 수 있다.

❷ 유방 전절제술

암이 많이 진행이 되거나 암의 크기가 큰 경우, 유두 가까이 암이 있는 경우, 여러군데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유방의 전체 제거를 시행한다.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종양이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액와부(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❶ 액와부 림프절 곽청술

수술 전에 림프절의 전이가 확인이 되었거나 수술 중에 감시 림프절 생검결과에서 유방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여러개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액와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게 된다. 수술 후 드물지만 감각 신경에 이상 감각 증상이나 운동장애 또는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❷ 감시림프절 생검술

감시림프절이란 유방에서 제일 먼저 림프액이 도달하는 림프절로서 수술 중에 대개 1~3개 정도의 감시림프절을 제거해 검사를 시행했을 때, 림프절의 전이가 없으면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생략해 림프부종, 감각 이상, 통증 등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감시림프절 생검에서 1~2개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 추 후 방사선치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생략할 수 있다.

유방암 다학제

유방암의 치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유방암의 다학제 진료는 수술을 하는 유방외과 의사를 비롯해 진단에 관여하는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항암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종양내과, 방사선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종양학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산부인과, 유방절제술 이후의 상실감을 고려해 성형외과의 유방재건,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 재활의학과의 재활치료를 위해 각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자 본인과 보호자와 함께 향후의 진료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료진 간 또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협력,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다학제 진료를 통하여 유방암의 치료 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최대한 보존하여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등 수술 후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마음까지 지켜드립니다
유방암

환자의 마음까지 고려한 유방재건술

전절제 환자의 유방재건술 방법과 예후



유방재건술의 긍정적 측면

우리나라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1위의 증가 속도를 보일 만큼 유방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해야 할 때 여성들이 겪는 상실감은 상당히 크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우울 증상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방재건은 여성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은 림프절 절제로 인한 림프부종을 일정 부분 막아줄 수 있고, 척추의 후만증과 같은 척추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진다.

유방재건술의 방법

유방재건술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방식과 보형물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 자가조직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공여부는 하복부 조직이다. 하복부 조직은 지방조직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선조직을 대체할 만한 볼륨을 확보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가슴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복부 조직과 그 조직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을 같이 채취해서 가슴 부위의 내흉동정맥과 같은 혈관을 노출시킨 후 미세수술을 통해서 혈관을 문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수술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하복부에 긴 흉터가 남을 수 있다. 이외 등쪽 광배근을 이용하거나 허벅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광배근 이용은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나, 유방의 크기가 클 경우 광배근만으로는 충분한 볼륨을 채울 수 없어 보형물과 함께 이용되기도 한다.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유선조직이 절제된 곳을 보형물로 채우는 것이다. 유방절제술의 방법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직 확장기 삽입술 후 보형물로 대체하는 두 단계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와 바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보형물을 이용하는 수술은 상대적으로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 방사선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이

글. **박성오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유방재건술은 여성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며, 림프절 절제로 인한 림프부종을 일정 부분 막아줄 수 있고, 척추의 후만증과 같은 척추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진다.

루어질 때 구형구축, 보형물 노출 등의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식도 과거에는 보형물의 위치를 대흉근 밑에 넣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대흉근을 건드리지 않고 대흉근 앞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대흉근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술 후 통증 및 회복이 훨씬 빠르나 보형물 전체를 무세포 동종진피로 감싸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든다.

유방절제술 시 유륜과 유두가 제거되는 경우도 있다. 성형외과에서는 국소피판술 등의 수술 방법으로 유두를 재건하고, 추후 문신을 통해 유륜과 유두에 색깔을 입혀 최종적으로 건측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의 유방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동시 재건과 지연 재건

동시 재건은 암 절제를 시행한 후 바로 재건수술을 하는 것이고, 지연 재건은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시 재건을 할 때에는 비록 유방조직은 제거됐지만, 유방조직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내부의 볼륨을 채워줄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암 진단 자체가 충격적이고, 암 수술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워 추후에 재건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방절제술을 따로 받은 환자들은 피부가 흉벽에 붙으면서 아물기 때문에 피부가 수축하게 된다. 이런 경우, 재건을 할 때 피부의 부족분을 다른 방법을 이용해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다소 부자연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암의 재발 및 전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재건수술을 받을 수 있다.

부분 절제술의 유방재건

2015년 하반기부터 유방전절제술 후 이루어지는 유방재건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고, 동시 유방 재건의 시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유방전절제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53.4%에서 재건수술이 이루어졌다. 반면, 유방전절제술이 아닌 부분 절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분 절제술을 받는 환자들에서도 유방재건을 원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등 부위의 광배근 및 주변조직을 이용해 재건수술이 이루어진다. 부분 절제술이라도 유방의 변형을 재건수술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학제 진료의 장점

유방암 다학제 진료는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방외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될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재건수술 방식을 선택하기가 용이하다. 가령, 유두·유륜 보존 유방절제술이 아닌 단순 유방절제술 혹은 피부보존 유방절제술이 이루어질 경우 피부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환자의 보형물 재건 시에는 조직 확장기를 이용한 두 단계 재건술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환자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형물보다는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 방식을 추천할 수 있다. 수술 후에 항암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 치료를 가급적 조기에 시행해야 하는데, 재건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의 시기를 조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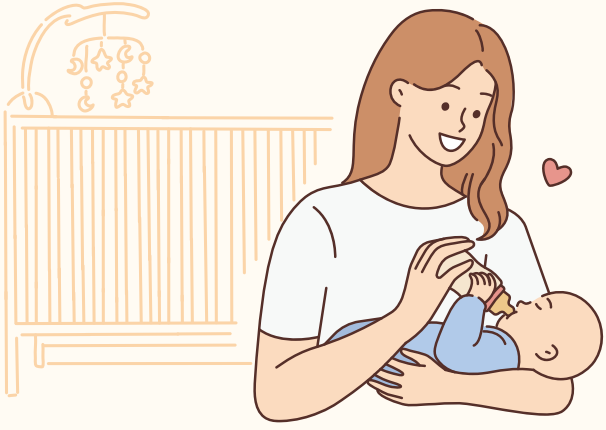
유방암은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해당분야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면 최신 지견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다학제 진료는 각 진료과의 의료진끼리 직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함으로써 의료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환자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

03 마음까지 지켜드립니다 유방암

젊은 여성 환자도 임신·출산 걱정 없도록

유방암과 난소보존



난소기능 보존

서양 여성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병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30대 여성에서의 발병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결혼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출산 연령도 늦어지면서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 중 유방암 환자도 증가 추세이다.

유방암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 환자들 중에는 4가지 치료를 다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4가지 치료 중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중 항암치료는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타목시펜 호르몬 치료는 사용기간 동안 임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던 유방암 환자가 치료가 끝나서 임신을 시도했을 때 난소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폐경이 되어 임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충격을 받고 경황이 없어 암 치료에만 집중하게 된다. 즉, 암 치료가 향후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잊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난소기능 보존을 위한 노력은 치료 시작 전에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자 본인과 의료진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배아(난자) 동결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옵션은 배아 동결이다. 난포자극 호르몬 주사를 통해 과배란을 하고 난자 채취 후 시험관시술로 배아를 동결해서 보관한 후 암 치료가 끝나면 이식하는 방법이다. 다만 과배란 과정과 난자 채취 때문에 유방암 치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 주치의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2주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초단기 시험관 시술이 가능해 충분히

글. **배재만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유방암 치료 중 항암치료는 난소기능이 저하되거나 폐경이 되어 임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기능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항암치료 전에 시도하는 것이 좋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배아를 동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난자동결의 경우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배아동결에 비해 성공률이 떨어져서 권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성공률이 향상되어 가이드라인에서 치료 옵션의 하나로 권해지고 있다.

난소 보호주사 (GnRH agonist,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작용제)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난소 기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가 항암치료이다. 항암치료는 다양한 항암제가 사용되는데 약제에 따라 난소 독성의 정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항암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난소 보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소 보호주사를 고려해야 한다. 난소 보호주사란 여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주사이다. 이 주사를 사용하게 되면 항암치료 중에 난소 기능을 지속적으로 억제시켜 항암제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소 보호주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즉, 폐경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으나 폐경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서 임신의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소 보호주사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배아(난자) 동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BRCA(유방암 유전자, Breast Cancer gene) 유전자 변이 확인

유방암이 진단되면 확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BRCA 유전자 변이 유무이다. 특히,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있는 경우나 40세 이하에 진단되었거나 양측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는 특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들은 의료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큰 본인 비용 부담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BRCA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다면 난소암의 위험(난소암의 평생 유병률이 BRCA1: 약 40%, BRCA2: 15~20%) 때문에 BRCA1의 경우는 35~40세, BRCA2의 경우는 40~45세 사이에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BRCA 유전자 확인이 된다면 임신 계획을 좀 더 서두를 것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통 2주가 채 걸리지 않는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향후 임신을 위한 배아(난자) 동결이나 난소 보호주사 등의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막 암 진단을 받은 젊은 여성 환자에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때 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때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다학제 진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학제 진료를 통해 임신과 출산, 난소 보존을 위한 상담을 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잃을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환자 맞춤형 입원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한양대학교병원 입원지원센터

한양대학교병원 서관 6층 입구에 자리한 입원지원센터. 입원환자들이 입원 전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체계적인 입원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3월 환자 편의를 위해 개소한 한양대학교병원 입원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좌측부터) 황호정 파트장, 손유경 외래팀장, 오유민 간호사, 용지연 간호사





환한 입구, 환자 이동동선까지 신경 쓴 입원지원센터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입원을 준비토록 편의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입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입원지원센터를 개소하기까지는 한양대학교병원을 사랑하는 140명의 교직원 기부자분들의 따듯한 정성도 큰 힘이 되었다.

입원이 결정된 환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편안하게 입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지원센터 전담 3명의 간호인력이 깨끗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황호정 파트장은 "입원 당일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가실 때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데,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보통 1~2시간의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들에게 체계적인 입원 생활에 대한 안내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안락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입원 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편안함과 신속한 입원 전 검사로 높은 만족도 제공

입원지원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미숙아 환자를 제외하고 입원이 결정되는 모든 과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편안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어서 정식으로 개소한 지는 3개월 남짓이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이것이다. 황호정 파트장은 "일단 병원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기다리는 동안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신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입원환자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

> "입원지원센터는 환자들에게 입원 생활 안내 및 안락한 입원 대기 장소로서의 입원 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되어 있고, 입원 생활에 대한 안내는 물론, 병동에서 진행되는 초기 평가를 미리 하고 입원실로 이동하니 치료도 빨라지니까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새로 개소한 곳이라 깨끗한 것도 있지만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직후 시행했던 검사를 입원 전에 시행해 입원 후 빠른 시간 안에 수술과 치료 등 치료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입원 전 검사는 엑스레이, 심전도, 피검사 등 예약을 잡지 않고 진행하는 검사이다. 용지연 간호사는 "입원 수속을 하고 병동으로 가면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를 더 빨리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입원병동에서는 입원 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입원 일수를 단축하는 효과로 이어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응급환자 대응 매뉴얼도 준비되어 있어

입원지원센터에서 대기하는 도중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대비해 입원지원센터 담당간호사는 곧바로 응급실로 연락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

손유경 간호국 외래팀장은 "환자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 언제든 응급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그뿐만 아니라 입원 병실로 이동했을 때 의료진이 혼란을 겪지 않고, 추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처방을 내린 외래 담당 교수님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환자의 상태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간과 전문 인력 투입으로 보다 환자가 편하도록

개소 3개월동안 일 평균 방문환자는 30여 명. 더 많은 환자가 원활하게 입원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오유민 간호사는 "현재 내과 환자들이 많은 편인데, 앞으로는 외과 환자분들도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황호정 파트장은 "입원지원센터에 대한 환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환자 맞춤형 입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다짐 속에서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한 병원으로 나아가는 셀프 신체계측공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키, 몸무게, 혈압 측정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들이 입원 전 입원지원센터에서 대기하는 잠깐의 시간동안 기본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입원지원센터 맞은 편에 셀프 신체계측공간을 마련했다. 황호정 파트장은 "병원의 스마트한 변화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셀프 신체계측공간은 입원환자를 포함한 한양대학교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이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쉽고 빠르게 기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생긴 셀프 신체계측공간에서는 키오스크에 환자가 환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체 계측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환자 정보에 기록된다. 외래 진료나 입원 전에 의료진은 셀프 신체계측공간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환자 정보를 확인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 및 치료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셀프 신체계측공간은 스마트 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병원 내 다양한 공간에 확대 적용 예정이다.

오유민 간호사는 "환자분들이 신체계측을 하셨는지, 몸무게나 혈압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의료진이 다음 치료계획을 세울 때도 좋고, 환자분들도 바로바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며 말했다.



"환자 맞춤형 입원 생활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구자. **한명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노인에서 텔로미어 길이 단축과 초기 주관적인 인지 불만과의 상관관계

"노인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향후 인지장애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주관적인 인지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노화학회지인 『Aging』 2023년 2월에 실린 'Relationship between telomere shortening and early subjective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complaints in older adults' 중에서

생체나이, 노화와 수명 지표가 되는 텔로미어

텔로미어(telomere)란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염색체 보호 구조를 의미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지며, 이는 세포가 얼마나 분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생체 시계 역할을 한다. 또한 텔로머레이즈(telomerase)라는 효소에 의해 텔로미어 길이가 늘어나는데, 이 효소는 텔로미어 길이가 과도하게 짧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텔로미어의 길이는 8.5에서 13.5kbp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1은 나이에 따른 텔로미어 길이의 평균치를 보여준다. 보통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약 30~35bp 정도씩 줄어들게 되며 60세가 지나면서 평균 텔로미어의 길이는 5~6kbp 정도가 된다(참고 논문: Telomere Length as a Marker of Biological Age: State-of-the-Art, Open Issues, and Future Perspectives. Frontiers in Genetics, 2021). 그리고 보통 텔로미어의 길이가 5kbp 정도 되면 사람 수명의 한계점으로 본다.

텔로미어 길이와 노인성 질환의 관련성

평소 텔로미어의 길이와 노인성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과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60bp 정도로 보통 사람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Relationship between telomere shortening and age in Korean individual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compared to that in healthy controls. 『Aging』, 2021). 이를 계기로 평상시 노인에서 텔로미어 길이를 쟀을 때 노인성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마침 논문의 교신저자인 고성호 교수를 통해 관심 있던 주제의 좋은 연구에 참여하게 됐다.

텔로미어 길기가 짧을수록 주관적인 인지 불만 가능성 높아

본 연구는 치매나 주요 우울증에 대해 진단 받은 적이 없고 암이나 심장

질환 등 주요한 신체적 질병이 없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60세에서 79세의 고령자 13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2월에 미국의 노화 학회지인 『Aging(피인용지수: 5.955)』에 'Relationship between telomere shortening and early subjective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complaints in older adults'라는 논문으로 게재됐다. 간단하게 결과를 설명하면 선형 회귀 분석에서 노인의 주관적 우울감을 측정하는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는 약 62~64bp 정도 감소했고, 인지 불만을 측정하는 CCI(Cognitive Complaint Interview)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대략 112~144bp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인터류킨-6 수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는 약 81~85bp가량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위의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에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향후 인지장애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주관적인 인지 불만(subjective cognitive complaint)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터류킨-6과 텔로미어 길이의 상관관계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에서 주관적인 인지 불만이 있는 경우, 인지 불만이 없는 경우에 비해 3년 후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은 3.5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60~79세의 노인들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 향후 노년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관적인 우울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노인 건강 검진 시에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면 향후 생길 수 있는 치매나 노년기 우울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노인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인지 장애나 우울증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먼저 가족에게 알려 관심을 유도하고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노인성 우울 증상이나 인지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게 하여 예방적으로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치매나 노년기 우울증의 발생을 늦추거나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우리는 피검사에서 인터류킨-6가 높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혹시 노인에서 인터류킨-6가 텔로미어의 길이의 단축과 초기 주관적인 우울 증상과 인지 불만과의 연관성에 중요한 고리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닐까 가설을 세웠다. 그림2)

그래서 향후에 인터류킨-6을 포함한 혈액 바이오마커(biomarker)와 텔로미어의 길이 그리고 치매와 우울증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1) Lymphocy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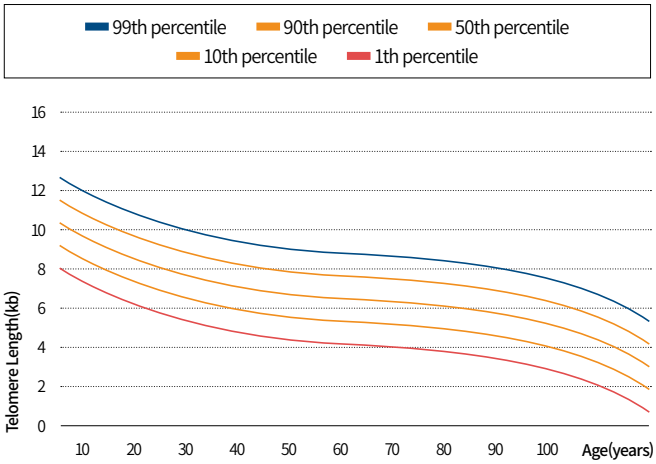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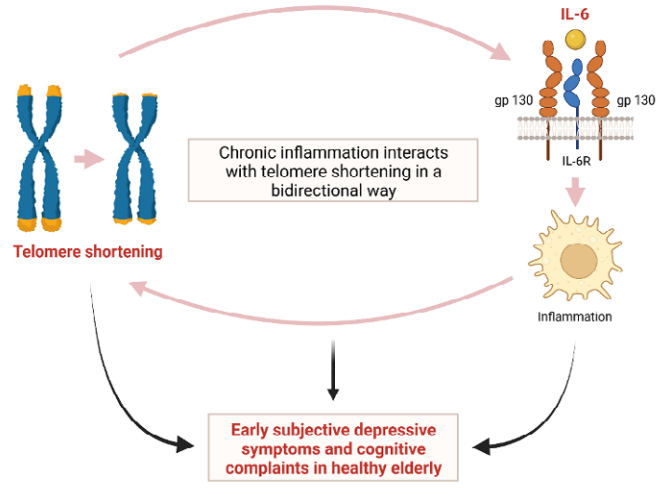


그림2)



Remarkable research



◀ Relationship between telomere shortening and early subjective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complaints in older adults

노인에서 텔로미어 길이 단축과
초기 주관적인 인지 불만과의 상관관계

글. **안병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크론병이 못된 병이라고요?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 황선규의 크론병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 7화에 등장한 선규. 선규의 크론병으로 여자친구의 부모는 "유전되는 못된 병이다"등과 같은 막말을 하며 둘의 결혼을 반대한다. 일부 시청자는 크론병 환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크론병이란 무엇인지 유전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본다.





크론병(Crohn's disease)이란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기관 어디에도 생길 수 있는 만성적인 염증질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경우 비교적 희귀한 질환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생활양식이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내시경 등 진단 기법이 발달하면서 질환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처음 진단받는 시기는 15~30세 사이가 가장 흔하지만, 60~80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크론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완치보다는 염증 증상을 완화시키고 무증상 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둔다. 일차적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하지만 치료 과정 중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크론병의 증상

크론병은 장의 모든 부분을 침범할 수 있어 침범 위치, 염증의 정도, 병이 발생된 기간, 합병증의 상태 등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장 이외의 장기를 침범해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복통과 설사가 흔하고 혈변을 볼 수 있으며 빈혈,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가 자주 동반된다. 반복적인 염증에 의해 크론병이 악화될 경우 장협착, 누공, 농양 그리고 천공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으로 급성장염이나 기능성장염 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장결핵이나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다른 만성염증성 장질환과 임상소견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환자의 경우 위와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크론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크론병의 원인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자가면역기전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환경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크론병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인자 역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남녀의 발병률이 비슷하며, 모든 연령층에 크론병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주로 20~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가족 중에 크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발생 빈도가 조금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크론병의 진단

크론병은 임상적, 영상의학적, 내시경, 그리고 병리조직

소견 등을 종합해 진단한다. 소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므로, 소장 조영술을 시행하거나 최근에는 캡슐내시경, 소장내시경도 시행한다. 대장의 경우에도 대장조영술이나 대장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확인한다. 내시경을 하는 경우 병변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데, 크론병에 합당한 소견이 나오면 확진할 수 있다. 또한 복부 농양이나 장루 등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등의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크론병으로 확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행하거나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크론병의 합병증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장폐쇄로 이는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 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염증으로 궤양이 심해질 경우 장천공이 생기면서 누공, 복강 내 농양, 복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대량 출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크론병은 항문 주변에서도 치열, 치루, 항문주위 농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크론병의 치료

1 약물치료 약물치료로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크론병의 주된 치료이다. 즉,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을 투여해 증상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인 치료 목표이다. 치료약제는 크게 염증억제제와 면역억제제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급성염증반응 시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2 영양요법 많은 크론병 환자가 영양결핍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잔변이 적고 칼로리가 높은 식사가 권유되며, 심한 영양결핍이 있는 경우 주사를 통한 고농도 영양요법이 시행될 수 있다. 그 외 쉽게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 철분제 등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술 크론병의 합병증인 장폐쇄, 농양, 누공 등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또한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심해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다. 수술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재발되어 반복적으로 수술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장절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수술을 시행한다. 크론병은 항문에도 잘 침범되는데 특히 항문주위농양 혹은 치루가 발생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고, 이 경우 역시 항문 괄약근의 손상 최소화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다.



크론병의 자가 관리법

1 식이조절 식습관에 따른 증상의 호전 및 악화는 환자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음식에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음식은 우선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방이 많은 음식의 경우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 저지방식이 권유된다. 지나친 섬유소의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다.

2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가능한 전신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과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신체활동 및 여가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적절한 운동은 크론병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3 생활습관 가능한 심신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수면 및 적절한 신체활동 및 작업이 도움이 되며 역시 가능한 정규적인 일상생활이 좋다. 과도한 업무나 불규칙한 일정 등은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환자의 경우 대장을 침범한 크론병 혹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이미 하트만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분으로 장루복원을 위한 2차 수술 상황이 있다. 2차 복원술은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문합부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회장루를 새로이 만든 상황으로 이는 실제 수술상황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며 수술실패로 보기 어렵다. 추후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할 경우 장루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완치가 어려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녀에게 유전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유발하는 질환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 **정라희** 사진. **신형덕**

누구나 '안심'하고 찾는 모두의 치매 주치의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뚝섬역 8번 출구와 서울숲역 5번 출구 사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공공복합청사 5층으로 올라가면 '성동구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전문의의 상담과 병원으로의 빠른 연계를 통해 성동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 가고 있다.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치매, 무료 검사 진행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길어진 수명만큼, 건강과 관련해서 대비해야 하는 일도 생겼다. 치매도 그중 하나다. 40대나 50대에도 발병할 수 있지만, 고령에 이를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비록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언어능력 및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과거 치매지원센터로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구로 확장된 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치매안심센터는 체계가 가장 잘 잡혀 있어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맞물려 정착한 좋은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이자,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를 맡고 있는 김희진 센터장의 말이다. 김 센터장과 함께 신경과 성원재 교수, 김용성 교수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에서도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의 역사가 가장 깊다. 2007년에 개소해 17년 동안 쌓은 노하우도 풍부하다. 인지선별검사나 신경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 역시 국가 지원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성동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김희진 센터장은 "치매 전단계와 치매 진행 단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다. 치매 전단계에서는 혼자 생활이 가능하지만, 치매로 진행되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보호자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센터에 방문하기도 하지만 '치매 검사에 혹시 비용이 들까 봐' 혹은 '치매인 줄 몰라서' 증상을 방치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 센터를 찾고 싶어도 심리적·지리적 거리로 인해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인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쉬어 가는 '치매안심경로당'을 지정하는 한편, 어르신 및 보호자의 '야외 치유활동 프로그램', 서울 안전한마당과 함께하는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과 손잡고 성동구 관내 어르신을 위한 '치매안심주치의' 앱을 개발했다. 앱을 실행하면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4개 생활권역에 있는 병의원도 확인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과의 긴밀한 관계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전문 의료진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치매조기검진을 진행하고, 치매 초기 단계인 어르신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나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센터에서 병원으로 빠른 연계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정신인 '사랑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걱정없는 치매 안심 성동구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위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
성수제1가2동 공공복합청사 5층
문의 02-499-8071

Dr. Opera

성악가들이 피하고 싶은 난이도가 높은 극한의 오페라







조아키노 로시니 오페라 〈렝스로의 여행〉

Gioacchino Rossini Opera <Il viaggio a Reims>

이 오페라는 노래들이 어려워서 정상급 성악가들도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악보에 오르고 내려오는 연속된 음표들이 많아서 부르기가 어렵고 고음이 많다. 바리톤과 베이스들도 어려운 아리아에 도전해야 한다. 게다가 주역급 성악가들이 무려 14명이나 등장하여 각자의 기량을 뽐내야 한다.

이 작품은 원래 렝스 대성당에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인 샤를 10세의 대관식 축하를 위해 작곡되었지만 14명의 정상급 성악가 섭외가 어려워 대관식이 끝난 3주 후 파리에서 초연됐다. 초연에는 샤를 10세를 비롯해 귀족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오페라를 보고 크게 만족한 샤를 10세는 '오페라를 며칠 후 다시 공연하라'고 지시했고, 재공연됐으나 이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공연할 기회가 없어 오랫동안 묻히게 된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마지막 장에 로시니의 재능을 보인 14중창이 나오고,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의 국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제1막 제1장 황금 붓꽃 여관 겸 온천장 하녀들을 통솔하는 역할인 막달레나는 하인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지 못해 속상해 있다. 손님들은 렝스에서 열리는 샤를 10세의 대관식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이때 온천장 전속 의사 돈 프루덴치오가 손님 맞을 준비로 온천을 닫는다고 하자 일하던 사람들은 신나서 자리를 뜬다. 돈 프루덴치오는 여관 지배인인 안토니오와 함께 귀빈들의 식사 준비를 살펴본다. 호텔 주인 코르테스 부인이 등장해 샤를 10세의 대관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언짢아하며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한다. 모두 나가고 마담 코르테스 혼자 남는다. **제2장 폴르비유 백작 부인의 도착** 백작 부인이 시녀 모데스티나를 찾자 모데스티나가 나타난다. 백작 부인이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걱정하자, 돈 루이지노가 와서 백작 부인의 짐을 실은 마차가 오다가 전복되어 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 백작 부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의사 돈 프루덴치오가 달려오고 부인을 사모한 트롬보노크 남작이 그녀에게 인공호흡을 하려 하자 정신을 차린 백작 부인은 짐이 오지 않아서 속상해한다. 잠시 후 모데스티나가 모자가 들어 있는 큰 상자를 들고 오자 백작 부인이 기뻐한다. 안토니오와 남작만 남고 모두 자리를 뜬다.

제3장 6중창 안토니오가 떠나자 무대에는 남작 혼자만 남는다. 잠시 후 의사인 돈 프로폰도, 스페인의 해군 제독인 돈 알바로, 폴란드의 후작 부인인 멜리베아, 러시아의 장군이 리벤스코프 백작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말이 있어야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데, 말이 도착하지 않자 돈 알바로와 리벤스코프 백작이 격하게 말다툼한다. 이때 여류시인 코리나가 형제애에 대해 노래를 부르자 이를 듣고 모두 기뻐한다.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 클래식501〉이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 만한 ALBUM



세실리아 가스디아(코리나),
프란시스코 아라이자(리벤스코프 백작),
카티아 리치아렐리(백작 부인),
사무엘 레미(스드니 경),
루제로 라이몬디(돈 프로폰도),
레오 누치(돈 알바로),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DG, 1983)



실비아 맥네어(코리나),
윌리엄 메티우찌(리벤스코프 백작),
체릴 스튜더(백작 부인),
사무엘 레미(스드니 경),
루제로 라이몬디(돈 프로폰도),
루치오 갈로(돈 알바로),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ony classical, 1993)



로라 지오르다뇨(코리나),
소피아 체드리쉬빌레(백작 부인),
미르코 팔라찌(시드니 경),
맥심 미로노프(리벤스코프 백작),
안토니노 포리아니(지휘),
비르투오지 브루넨시스(Naxos, 2014)

제2막 제1장 시드니 경의 아리아 마담 코르테스는 하인 젤소미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시드니 경에게 '어째서 코리나에게 접근하지 않느냐'면서 '그가 적극적이면 코리나가 좋아할 것'이라고 부추긴다. 젊은 여자들이 꽃을 들고 와서 코리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자 시드니 경은 기분이 나아지지만 돈 프로폰도가 와서 골동품의 정보를 달라고 하자 다시 기분이 나빠진다. **제2장 코리나와 슈발리에 벨휘오레의 듀엣** 돈 프로폰도는 코리나와 델리아가 있는 자리에 합석한다. 델리아는 그리스 여자로서 코리나의 여행 친구다. 돈 프로폰도와 델리아는 말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다. 잠시 후 슈발리에 벨휘오레가 코리나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사랑을 고백하자 당황하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제3장 돈 프로폰도의 아리아** 돈 프로폰도는 '여관 손님들이 국적이 서로 달라서 적잖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며 말이 준비되어 모두 떠나기를 바란다. 그때 백작 부인이 등장하고, 그는 슈발리에가 코리나에게 갔을 것이라고 말해 백작 부인은 기분이 나빠진다. 남작이 수심에 가득 찬 채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타난다. 마침내 심부름을 보냈던 체피리노가 나타나 말을 구할 수 없어 렝스에 대관식을 보러 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제4장 14개 음성의 그랜드 앙상블** 체피리노의 설명으로 모두 당황할 때 파리에서 온 편지를 돈 프로폰도가 읽는다. 왕이 곧 렝스로부터 파리로 돌아갈 것이며 파리에서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비록 렝스 대관식에 가지 못했다고 해도 파리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백작 부인이 모두를 파리 자기 저택에 초대하겠다고 말하며, 축하 연회에 마을 사람도 모두 초대하고 남은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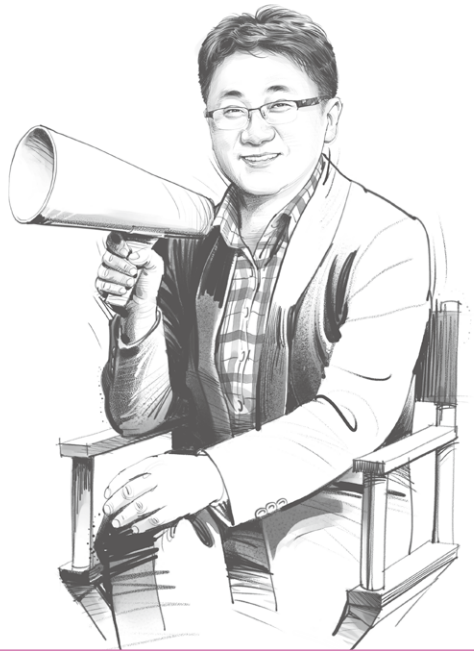
제3막 제1장 백작과 후작 부인의 듀엣 남작과 백작 그리고 후작 부인이 남는다. 남작은 질투심 많은 백작과 후작 부인을 화해시키면서 듀엣을 부른다. 여관의 정원으로 장면이 바뀐다. 안토니오와 막달레나는 이제 파티 준비되었다며 안심한다. 남작도 마을 사람들 모두 파티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2장 피날레** 오프닝 합창 후 남작은 각자 자기 나라 노래를 부른다. 먼저 슈발리에와 백작 부인이 프랑스 국가를 노래를 부르자 마담 코르테스와 돈 프로폰도가 목가적인 티롤의 민요를 부른다. 이어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의 국가를 주제로 한 노래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코리나가 쓴 시를 가사로 해서 노래를 부르기로 한다. 가사는 항아리에서 제비를 뽑아 정했는데, 바로 '샤를 10세, 프랑스의 왕'을 주제로 한 춤과 합창으로 막을 내린다.

Dr. Movie

리더의 품격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내 인생의 영화 91







며칠 전 저녁 뉴스에 하버드대학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건넨, 머리가 허옇게 센, 한 배우의 짧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하버드 졸업반 여러분이나 교수진, 저명한 동문과 어울리기 위해 공부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도서관도 가지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했던 인물의 연기를 하면서 나는 아주 잘 살고 있다"라며 "세상은 이런 거란다, 얘들아"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에 빠뜨렸다. 이와 아울러 "진실은 더 이상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데이터나 상식, 심지어 예의범절에도 근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조차 진실을 말하는 것을 더는 준거로 삼지 않고 있다. 결국 이와 관련된 책임은 여러분의 것이자 우리의 것이고, 노력은 선택사항이지만 진실은 신성하다. 변경할 수도 없고 미합중국의 기초에 새겨져 있다"라고 인생 선배로서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진실을 수호하고 미국의 이상을 지키며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이자 가장 미국적인 배우인 톰 행크스이다. 〈빅, 1988〉에서 축제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기계에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 뒤 갑자기 덩치가 커진 30세의 어른의 몸에 갇혀버린 조쉬. 아이의 감성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내고 승승장구하지만, 아이가 꿈꾸었던 어른의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이후 몇 편의 로맨틱 코미디를 전전하던 그는 〈필라델피아, 1993〉에서 부당 해고된 동성애자 변호사 역을 맡아 라이벌 변호사와 손을 잡고 소송 끝에 승소한다. 에이즈 환자라는 편견 때문에 수임을 거절한 변호사에게 신념과 확신을 보이며, 법정투쟁을 하고 끝내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한 그는 얼마 후 조용히 눈을 감는다. 마냥 말장난만 할 것 같던 그가 스스로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캐스팅에 동의하여 배우 커리어에 한 획을 긋는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다.

경계선 지능을 가졌지만, 열정적이고 가슴이 따뜻하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이를 실천했던 〈포레스트 검프, 1994〉는 하는 일마다 운수가 대통하여 현대 미국사에 길이 남는 행보를 보인다. 포탄이 빗발치던 베트남 전장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버바를 구해야 돼요!"라며 그의 장기인 둘러업고 뛰기를 시연했던 그는 성실함과 대책 없는 우직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녀 허상뿐인 아메리칸드림을 그려냈다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기성의 주류적 관점에서 가치관을 다룬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히피 문화와 블랙 판다를 통한 반권위주의적인 비주류의 입장도 함께 표현하고 있어, 어찌 보면 영화 도입부 버스를 기다리던 검프가 옆 사람에게 말하던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무엇을 고를지는 아무도 모른단다"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사람의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생은 사실(事實, fact)이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보는 장면은 사실(寫實, image)이면서도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사실(史實, history)이라는 다양한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수행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위해 여덟 명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명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지휘관이 나라면 어떨까? 전쟁터에 4형제를 보낸 어머니가 있는 깡촌 아이오와주의 시골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자, 그녀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다. 차가 멈추고 정복을 입은 육군 장교와 군종 목사가 내리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고 만다. 미 육군참모총장은 위의 3형제가 모두 전사하자 남은 막내 라이언 일병을 무슨 수를 쓰든지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조지 스필버그가 특유의 판타지와 낭만을 걷어버린 채 무시무시한 하드 고어의 실제 전장을 표현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98〉은 오마하 해변의 무참한 도륙 장면만으로 이미 전쟁영화의 최고봉에 오르게 됐다. 전직 역사 교사인 밀러 대위는 순간순간 이성과 광기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부대원이 한 명씩 희생되고 급기야 의무병에게 해줄 것이 치사량의 모르핀 투여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는다. 그는 남은 대원들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홀로 멀리 떨어져 흐느낀다. 고생 끝에 만난 라이언 일병은 혼자 갈 수 없다며 독일군에 포위된 채 마지막 작전을 고집하지만 밀러 대위 역시 총에 맞고, 탱크가 그를 덮치려는 순간 연합군 비행기가 탱크를 부순다. 라이언은 밀러에게 달려가고, 지휘관 밀러 대위는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숨을 거둔다. 8명이 출발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 팀은 결국 2명만 살아남았다. 이 영화를 지휘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황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기 암시와 자기합리화를 통해 임무를 완수하려는 그의 처절함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마지막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2013〉으로, 2009년 탑승객 전원이 생존한 비행기 추락 사고의 알려지지 않은 후일담을 그린 영화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좌측 엔진의 기능이 상실돼 어쩔 수 없이 비행장이 아닌 허드슨강에 착륙했던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언론과 시민들, 이와 반대로 자신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는 사고 조사관들 사이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비행기가 도심으로 떨어지는 악몽을 꾸게 된다. 비행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첫 회항 결정지인 라과디아 공항과 두 번째 회항 예상지였던 테터보로 공항에서 각 20회 모두 무사 착륙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설리는 극도의 패닉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후 공청회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조종사들이 17회의 연습을 시행했을 뿐, 새에 의해 엔진이 파괴되면서 벌어진 35초 후의 돌발적인 상황에서 인적 요소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자 다시 실시한 모의비행에서는 제방에 추락하거나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기장과 부기장의 놀랍도록 침착한 상황 판단과 대처가 아니었으면 불시착은 물론, 추가적인 엄청난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설리 기장이 청문회에서 신념에 찬 어조로 자기 행동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설파하는 장면은 옛날 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1939〉에서 얼떨결에 상원 의원이 되어 발의한 법안이 노회한 정치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서게 된 제임스 스튜어트가 23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난국을 타개해가는 장면과 묘하게 닮았다. 그 역시 미국식 정의를 표현한, 선한 역만 도맡았던 몇 안 되는 배우였다.

미국 대통령에 어울릴 법한 신실함과 강직함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톰 행크스는 놀랍게도 영화 속에서 대통령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화에서 보여준 정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념은 진정한 리더에 목말라 하는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의 워너비 리스트에 충분히 들 만하다. 태평성대에 필요한 영웅과 혼란의 시기(난세)에 필요한 영웅은 다르다 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둥글둥글한 사람이 아닌,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내는 자기애가 충만한 비주류의 감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인물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반문을 해봄직하다. 마음 바뀌지 않고 성원해 줄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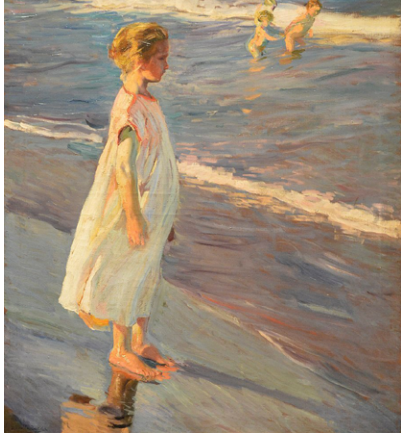
글. **김영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스페인 인상주의의 대가 지중해의 빛을 그리다



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와 뇌졸중 stroke

스페인 화가이면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이하 호아킨 소로야). 그는 야외에서 직접 보고 그리는 풍경화 방식인 '외광 회화'로 도시 및 바다 풍경화를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해 유명해졌다. 빛 표현을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답게 묘사한다는 찬사를 받은 호아킨 소로야는 그림을 그리는 중에 종종 마비 증상을 나타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호아킨 소로야를 죽음에 이르게 한 뇌졸중은 어떤 질환일까?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는 이르는 말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세동, 흡연, 술, 비만, 운동 부족 등이
뇌졸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면 쉽게 예방할 수 있으며
발생 시 빠른 치료를 위해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호아킨 소로야가 앓았던 뇌졸중은 뇌출혈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뇌경색과 뇌출혈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얼마나 크게 혈관이 막혔는지, 얼마나 크게 출혈이 왔는지에 따라 환자의 예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199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뇌출혈의 빈도가 높았지만 혈압약을 통해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며, 짠 음식을 먹는 빈도가 낮아지면서 뇌출혈은 2000년 이후 비교적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등의 서구식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지속적으로 뇌경색을 증가시키고 있다.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환자는 어떤 일을 하는 뇌가 손상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한 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편측마비가 있으며, 이 외에도 안면마비, 언어장애, 어지럼증, 시야장애, 의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뇌기능장애는 정상적인 몸의 기능이 없어지는 '음성증상'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되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될 때 뇌졸중을 의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뒷머리가 뻐근해지는 통증이나 손발이 저린다거나, 손떨림, 경련, 통증 등 몸의 기능이 더 많아지는 '양성증상'이면서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두통의 경우 매우 큰 뇌경색이나 거미막하출혈 등에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두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하며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의 증상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뇌졸중 치료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며, 빠르게 치료가 될수록 증상을 회복시키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뇌졸중을 적절히 치료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생기자마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4시간 반이 넘으면 혈관 재개통을 시키는 약물을 맞을 수 없고, 12시간이 넘으면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뇌가 심장과는 달리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혈관 재개통을 위한 치료들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의 증상을 알고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뇌졸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흡연, 술, 비만, 운동부족이며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고 있을 때 뇌졸중은 쉽게 예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이 발생한 뒤에 다시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먹게 되며, 본인의 뇌졸중 타입에 잘 맞는 약물을 평생 복용하여야 한다. 대개의 약물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약간의 멍이 들거나 지혈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심한 출혈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적절한 약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전혜정 사진. 안용길

행운이 만들어준 행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영진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잦은 감기, 모세기관지염으로 한 달이 멀다 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수호.
동네 병원부터 3차병원까지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는데 최영진 교수님을 만나 정확한 치료도 받게 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교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는 수호 어머니 박상희 님과
의료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치료를 잘 따라와 줘서 감사하다는 최영진 교수의 이야기.**



인생의 모든 행운을 모아 만난 최영진 교수님께



교수님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호는 신생아 시절부터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고, 감기가 걸렸다 하면 고열로 인한 탈수증세까지 보였어요. 동네병원, 우리나라에서 Big5라 불리는 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정말 병원 문턱이 닳도록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든 '모세기관지염'이라는 진단으로 호흡기 치료를 할 당시만 호전되었다가 또 아프고… 반복이었죠. 그러다 첫째 아이가 신생아 중환실에 입원하고, 치료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호는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인지 진료실 앞에서부터 거부가 심하고, 어른 3명이 붙잡고 있어도 제대로 진료가 힘든 아이였어요. 그런데 최영진 교수님에게 처음 진료받던 날, 수호가 너무도 얌전하게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교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맞아주시고, 진료해 주시는 모습에서 수호도 마음의 문이 열렸나 봐요. 너무 잦은 모세기관지염으로 기관지가 예민해져 소아천식으로 발전된 것을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바로 호흡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기침도 멎고, 정말 눈에 띄게 증상이 좋아져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만 받고 있어요.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느낀 건 최 교수님처럼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눈 맞추며 진료하시는 것은 물론, 보호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교수님을 못 뵌 것 같아요. 최영진 교수님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건 저희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수호가 건강해졌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수호 엄마, 박상희 드림

힘든 천식치료도 잘 따라와준 수호와 수호 어머님께



힘든 치료를 잘 견뎌준 수호에게 고맙고,
의료진의 결정을 신뢰하여 주신 수호 어머님 감사합니다.

뽀얀 피부에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띠며 진료실로 들어오던 모습이 수호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수호는 만 2세가 안 됐을 때인데 감기와 모세기관지염을 너무 자주 앓았었던 상태였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단순 감기,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기엔 한 달에 3~4회 이상 진료를 볼 정도로 너무 자주 아팠습니다. 심한 쌕쌕거림과 호흡곤란으로 일주일씩 입원하는 일도 몇 번 있었고요. 이런 잦은 쌕쌕거림 증세를 보고 이미 기관지가 예민해진 소아천식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호흡기 치료를 포함해서 천식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는 걸 확인하고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귀여운 수호를 자주 볼 수 없어 아쉽지만(웃음), 병원에 자주 안 오고 건강하면 좋은 거죠. 천식은 급성기천식을 제외하고 실제 치료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길고,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속성이 떨어지고 완치도 잘 안되는 것이 이런 이유이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늘 지금 시기의 적절한 치료가 아이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치료방향을 함께 결정합니다. 수호와 수호 어머님은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항상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소아천식은 꾸준히 치료만 받는다면 청소년, 성인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완치가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 수호가 지금처럼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의 결정에 잘 따라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최영진 드림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23년 4월 ~ 5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재현 교수
몸과 마음 살리는 운동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대원 교수
간 건강



SBS 모닝와이드 김희진 교수
머리둘레가 작으면 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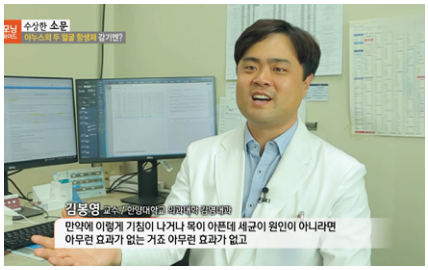
SBS 모닝와이드 박정환 교수
약지가 길면 탈모위험



SBS 모닝와이드 노성원 교수
우울증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호 교수
증상으로 보는 발 질환



SBS 모닝와이드 김봉영 교수
야누스의 두 얼굴 항생제 감기엔



MBC 뉴스데스크 오재원 교수
꽃가루 알레르기



YTN 사이언스 김정은 교수
지루성피부염

한양대학교병원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경제TV/ 4월 8일/ '마약 음료수' 사건 속 '공부 잘하는 약' 이야기 **엄지은 혈액종양내과 교수** KBS [건강365]/ 4월 12일/ 빈혈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KBS [건강365]/ 4월 13일/ 회전근개파열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 4월 17일/ 약지가 길면 탈모 위험?/ KBS [건강365]/ 5월 6일/ 비만 **김희진 신경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4월 17일/ 머리 둘레가 작으면 치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월 5일/ 우리 가족 두뇌 건강법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4월 20일/ 우울증 커뮤니티_베르테르 효과/ YTN/ 5월 5일/ 마약 중독, 어떻게 삶을 파괴할까...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25일/ 당뇨병, 비만, 염증이 간암까지? 간 건강법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KBS [건강365]/ 4월 30일/ 전립선비대증 **김정은 피부과 교수** KBS [건강365]/ 5월 3일/ 건선/ YTN [사이언스] / 5월 8일/ 지루성 피부염 구별법과 원인 및 예방법 **정윤경 외과 교수** KBS [건강365]/ 5월 4일/ 담석증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연합뉴스 TV/ 5월 7일/ 스마트폰이 변기보다 더럽다고?/ SBS [모닝와이드]/ 5월 18일/ 항생제 **박진화 소화기내과 교수** KBS/ 5월 11일/ 식중독 급증… 손 소독제로 예방 안 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환철 심장내과 교수 KBS [건강365]/ 4월 5일/ 심방세동 **박재현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6일/ 몸과 마음 살리는 최고의 운동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13일/ 맞춤 실내 운동법/ 5월 9일/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 증상으로 보는 발 질환/5월 29일/ 사고 · 수술 이후 이상 증상 회복 중인 걸까? 후유증일까?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 4월 22일/ 봄의 반란…더 커진 기후 '경고음'/ MBC [뉴스데스크]/ 5월 6일/ 기후변화로 증가한 꽃가루…바이러스 품고 날아다닌다 **김창선 응급의학과 교수** SBS/ 5월 18일/ 사실 누락에 '응급실 뺑뺑이' 부정…"국민 눈높이 맞춰야" **강민호 안과 교수** KBS [건강365]/ 5월 19일/ 이상편 (군날개)

2023년 5월 2일(화)


한국일보

"콩팥이식 후 담배 피우면 소실 위험 2.82배↑… 금연·금주는 필수"

2023년 5월 6일(토)


東亞日報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조울증 박창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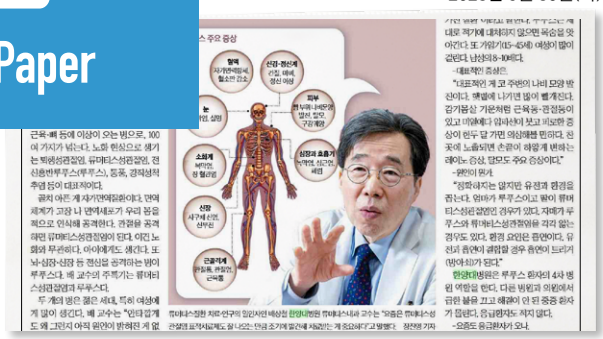
"조울증은 조금 불편한 질환… '정신병' 편견 더 힘들어"

2023년 5월 16일(화)


한국일보

"두경부암 수술 땐 말하고 삼키기 힘들어… 재건·미용 수술로 기

2023년 5월 30일(화)



NEWS

News Paper

한양대학교병원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서울신문/ 4월 5일/ 튀어나온 '윗배'… 소리 없이 줄어드는 '수명'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4월 10일/ 일요일 오후 가슴이 쿵쾅…'월요병' 없애는 마법의 5단계/ 동아일보/ 5월 6일/ "조울증은 조금 불편한 질환 **조정기 비뇨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4월 12일/ 男다른 변화 해결하는 '남성 호르몬' **안성준 안과 교수** 서울신문/ 4월 12일/ 욕실 타일 격자가 굽어 보여요?… 망막 검사 받으세요 **이원준 안과 교수** 중앙일보/ 4월 17일/ 증상도 없고 완치도 없다…10대도 걸리는 '치명적 질병' **박진석 신경과 교수** 조선일보/ 4월 20일/ 삐딱하고 불안한 청춘의 자화상은 '근긴장 이상증' 증세가 아니었을까 **김우현 심장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4월 21일/ 故서세원, 사망 원인 '경우의 수' **주민숙 피부과 교수** 서울신문/ 4월 26일/ 대상포진… 붉은 반점 발견 땐 72시간 골든타임/ 한국일보 5월 6일/ '간질간질'한 항문 때문에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조선일보/ 4월 27일/ 최초의 여성 인상파 화가를 앗아간 '장티푸스'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4월 28일/ 매달 약값 200만원 부담…"숨 막혀" 감기로 응급실 가는 천식 환자들/ 머니투데이/ 5월 6일/ 에어컨 '곰팡이 바람' 막으려면/ 중앙일보/ 5월 6일/ 한밤 발작적으로 기침 땐 천식 신호 **정재호 이비인후과 교수** 중앙일보/ 4월 30일/ 자꾸 눈 비비고 귀 만지네…말못하는 내 아기, 이건 중대 신호 **최지윤 외과 교수** 한국일보/ 5월 2일/ 콩팥이식 후 술·담배 다시 하다간 콩팥 다시 잃는다 **나민균 신경외과 교수** 한국일보/ 5월 9일/ 나이 들어 침침해지는 눈…알고 보니 '뇌하수체 종양'? **윤아일린 소화기내과 교수** 서울신문/ 5월 10일/ 간염… 합병증을 조심하라 **김유정 안과 교수** 머니투데이/ 5월 13일/ 인공눈물 오해와 진실 **박성오 성형외과 교수** 한국일보/ 5월 16일/ "두경부암, 암 절제뿐만 아니라 기능·미용 재건 수술도 중요" **민지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헤럴드경제/ 5월 19일/ "억대 연봉 유튜버보다 많이 번댔는데" 절반은 월급 100만원 '쪽박'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매일경제/ 5월 22일/ 고기 없이 못 살아? 그러다 진짜 못 살아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조선일보/ 5월 25일/ 금기된 누드 그렸던 과감한 화가… 난청으로 우울증 **김희진 신경과 교수** 머니투데이/ 5월 31일/ 자다 "헉" 놀라기만 한 게 아니다…경보에 위협당한 '이 부위' **고주연 피부과 교수** 서울신문/ 5월 31일/ 가렵고 성가신 무좀 피하려면… 구두부터 벗어야겠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선민 이비인후과 교수 중앙일보/ 4월 8일/ 방치하면 얼굴형도 바뀐다…'봄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공포 **이용구 심장내과 교수** 조선일보/ 4월 13일/ 그의 어두운 작품 배경처럼… 고요함 속에 갑자기 찾아온 심장 발작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4월 17일/ 꽃가루 알레르기, 주범은 바로 이 나무/ 중앙일보/ 4월 24일/ 앗, 콧물에 피가…"오전 환기도 자제"/ 조선일보/ 4월 26일/ 보이는 송홧가루는 알레르기 덜 유발/ 조선일보/ 4월 26일/ 몸에 꽃가루 들어오면 히스타민 분비… / 조선일보/ 5월 2일/ 꽃가루 알레르기 주범은 이 나무들/ 세계일보/ 5월 8일/ 기후 이상으로 2배 더 많이 날리는 꽃가루/ **박재현 재활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5월 22일/ 한 달 만에 10kg 빠져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중앙일보/ 4월 26일/ 감기 앓다가도 응급실 오는 루푸스…명의 잠귀가 밝은 이유/ 헤럴드경제/ 5월 6일/ 환자 치료와 R&D가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5월 18일/ '젊은 여성의 질환' 루프스, 어떻게 끝낼 것인가?/ 아시아투데이/ 5월 18일/ '가임기 젊은 여성' 위협하는 '루프스'…치료 약제 3개 현실 속 치료 성적 '정상급'/ 중앙일보/ 5월 30일/ 여성이 10배 더 걸리는 이 병…명의 잠귀가 밝은 이유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서울신문/ 5월 3일/ 45세 이상 5분의 1이 앓는 '관절염'… 적정 체중·바른 자세로 예방을

HANYANG NEWS

2023년 5월 ~ 6월

한양대학교의료원

피부과학교실, 제33차 동문학술대회

한양대학교의료원 피부과학교실은 지난 5월 2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3차 동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피부과학교실 고주연 주임교수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유용한 아토피 피부염과 기능의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잘하는 병원 선정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받아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90.0점보다 높은 94.9점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94.3점을 받아 1등급으로 선정됐다.

한양대학교병원

부정맥 시술 500례 달성



한양대학교병원 백남심장센터 박진규 교수팀은 지난 4월 26일 '부정맥시술 500례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진규 교수는 "백남심장센터에서는 최신 심전도 의료기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삼차원 지도화 시스템을 활용한 고주파 도자 절제술 및 냉각 풍선 도자 절제술 같은 최신 시술방법을 활용해 심방세동의 시술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51주년 개원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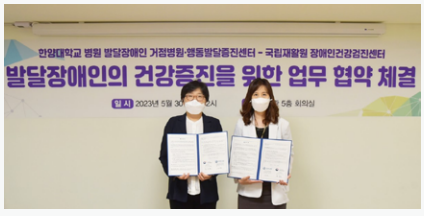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은 신관6층 세미나실에서 지난 5월 3일 개원 5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형중 병원장은 기념식에서 "본원이 지금까지 좋은 경영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스마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제1회 이른둥이 홈커밍데이



한양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5월 3일 본관3층 강당에서 '제1회 이른둥이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32주 미만(1,500g 미만) 미숙아로 태어나 한양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퇴원한 이른둥이 25여 명의 환아와 가족들을 초대해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동발달증진센터, 국립재활원과 업무협약



한양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는 지난 5월 30일 동관5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발전을 위해 ▲각종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국내외 학술대회 등 의학정보를 교류 ▲최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훈련과 자문 및 견학 ▲발달장애와 관련한 연구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한양대학교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받아 '정신건강 입원치료 잘하는 병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표준화를 목적으로 실행됐다.

4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



한양대학교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3주기에 이어 4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3월 28일~31일 진행된 의료기관인증조사를 받은 결과 환자안전보장활동,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 12개 필수기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의료기관인증은 오는 2027년 6월 2일까지 유지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6월 14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직업병 예방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환경보건 관련 상호 업무 자문 및 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발전적 운영 및 교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은 중독 감시체계 운영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업병 의심환자에 대한 발견 및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병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교류 및 협력하게 된다.

장기이식 1000례 기념 공동 심포지엄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6월 23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6층 TBL룸에서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장기이식 1000례 기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동호 장기이식센터장(외과 교수)은 "본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이식 성공 등 국내 장기이식 발전에 초석을 다져왔다"면서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장기이식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4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 발대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5월 12일 4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인증제에 필요한 활동 영역에 대해 추진위원과 실무위원의 임명이 진행됐다. 추진위원회는 의료기관인증을 향한 전 직원들의 열정과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11회 환자 안전의 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6월 2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11회 안전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승환 병원장은 "모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3회 개원의 연수강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6월 10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23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승환 병원장은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개원의들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제25주년 개원기념식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5월 25일 류마티스병원 1층 로비에서 '제25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태환 병원장은 "류마티스질환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유전체 연구와 중개의학, 정밀 의료 등으로 질병의 치료를 넘어 질환 정복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류마티즘 치료의 4차 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류마티즘 치료와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인물동정



김일빈 교수,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특별 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 교수가 지난 4월 24일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청년마음건강돌봄 교육' 행사에서 정신질환 예방과 관련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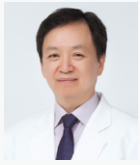
박기철 교수, 대한골절학회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박기철 교수가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49차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에서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5월 1일부터 1년이다.



배상철 교수, LUPUS & KCR 2023 성황리 개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대한류마티스학회장 및 세계루푸스학술대회 조직위원장)가 주도한 '2023 세계 루푸스 학술대회 및 제34차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 및 제17차 국제심포지엄(LUPUS & KCR 2023)'이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50여 개국 1,500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 성황리에 마쳤다.



김태환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류마티스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태환 교수가 지난 5월 17~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 루푸스 학술대회·제43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7차 국제 학술심포지움(LUPUS & KCR 2023)'에서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을 수상했다.



박선철 교수와 김대호 교수, 연구논문 한빛사 등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철 교수팀(교신저자 김대호 교수)의 연구 논문이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등재됐다. 또한, 박선철 교수는 최근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인 『Tasman's Psychiatry』에 타이베이 의대 윈스턴 쉔 교수와 함께 「우울증 치료제: 단가아민 증강제 및 에스케타민」 단원을 집필해 온라인으로 출판됐으며, 2024년 정식 출판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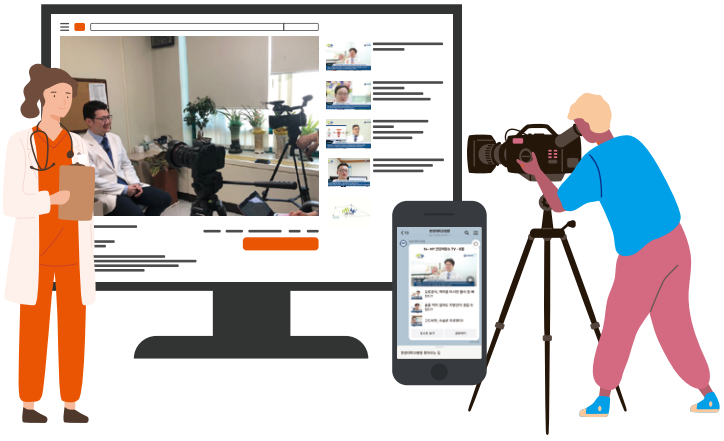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3년 5월 ~ 6월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TV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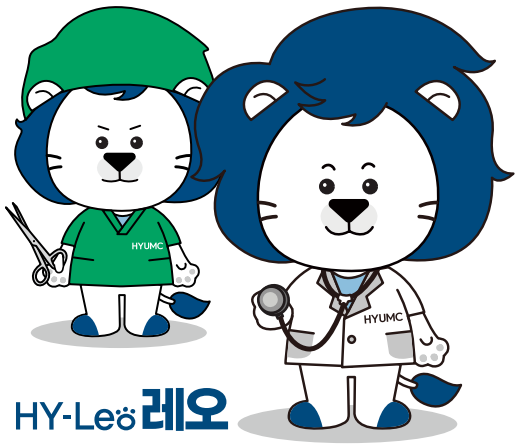
YouTube
'한양대학교병원(HYUMC)'
http://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post.naver.com/hyumc-pr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http://pf.kakao.com/_xlxbMku

NAVER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포스트



한양대학교병원 포스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01 카더라통신 파헤치기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카더라' 소문, 정말일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한양대학교병원 전문의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02 건강 크리에이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행동 패턴, 식습관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3 카드로 보는 건강 Tip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건강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04 바로 아는 건강정보
건강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증상, 질병, 원인, 치료방법 등 보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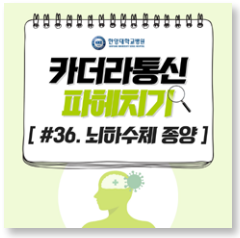
김준엽 교수



최찬범, 김봉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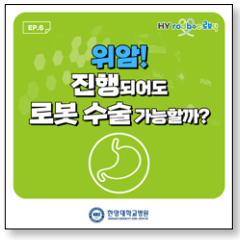
이강녕 교수



김동선 교수



송창면 교수



이주희 교수



주민숙 교수



이준철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소식과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질환 알아보기&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병원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발전기금은 의료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인재양성, 연구개발, 학술지원, 환경개선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의학을 선도할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에
동행해주십시오.

발전기금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부 분야

인재양성기금
우수 인재 발굴 및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학술지원기금
활발한 학술활동 지원으로
의학발전 선도

연구개발기금
연구역량 강화로 스마트한
메디컬 허브 구축

환경개선기금
진료환경 개선으로
환자중심병원 실현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 방법

방법 1 약정서 제출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접속 후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
▶ 약정서 내용 작성
▶ 대외협력실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hmcfund@hyumc.com)

방법 2 온라인 약정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또는 QR코드 인식
▶ '온라인 기부' 클릭
▶ 약정 내용 작성 및 제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TALK

발전기금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금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 전달 및
기부자님과의 1 :1 소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로
연결됩니다! (+채널추가)

기부자 명단

2023년 4월 ~ 5월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최호순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탄현성형외과(안성철)				
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김경래	김장욱	김형윤	오영하	이예진
	㈜다이나믹디자인	오브제성형외과 (신종인·이경묵)			
50만 원 이상~1백만 원 미만	국은영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강창남	강홍구	고주연	공동의	권오균
	김도윤	김명숙	김명희	김병제	김성재
	김용호	김이석	김자윤	김진녀	김태완
	김희수	도서판매	박미숙	박정하	박진식
	박희철	배근형	서정심	성명순	손유경
	손희중	신태양	심경아	심지훈	양정자
	양 현	염상철	이경석	이경섭	이규용
	이두연	이봉근	이성필	이진규	이창우
	이창훈	이희제	전재범	정규성	정승원
	정우성	정재홍	주일한	최경진	최성환
	최성훈	최윤영	최충혁	황규태	한주희
10만 원 미만	권난희	권연희	김나영	김명환	김소윤
	김애경	김춘애	김희나	문병임	박경숙
	박미숙	박미옥	박상혁	박선영	박유순
	박지경	박진희	서혜영	손진석	신정미
	안미경	양미영	염주일	오기향	오정님
	오홍석	유혜경	육수영	윤향순	음희재
	이경철	이미경	이승건	이의산	이정희
	이현주	임연희	임지영	전순아	진춘희
	최순익	한경수	홍은아	황미현	황희복
	익명				

한양대학교병원
환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리뉴얼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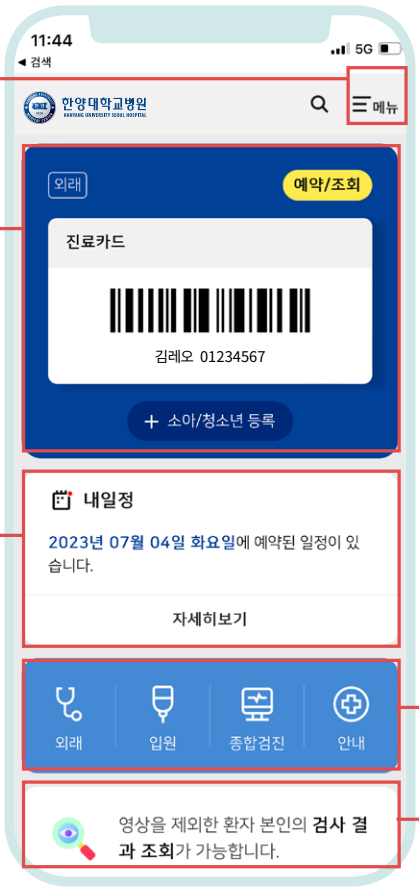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은 진료예약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올해 초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춘
사용자 맞춤형 앱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앱에서는 더욱 간편한 예약과
확인이 가능하고, 진료비 결제 및 재증명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병원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받기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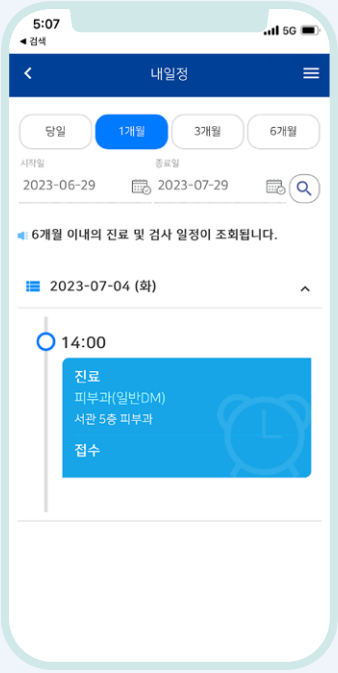
1 전체 메뉴



2 예약



3 내 일정



5 기타 위젯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윤병철	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간 질환, 간암, 자가면역성 간염
	이항락	금, 토(3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해 외 연 수		
	최성지	수, 금, 토(4주)	화	담낭, 담도, 췌장
	윤아일린	화, 수	목, 금	간 질환, 간암, 급·만성 및 자가면역성 간염
	박진화	목	월, 수	식도, 위, 장질환,용종,조기암,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최한솔	월, 화, 목, 토(3주)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성화	금	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승우	수, 토(1,4주)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신진호	월, 수, 금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시술
	임영효	수, 금	월	관상동맥질환,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성인선천성심질환
	박진규	월, 목(반동기클리닉), 토(1주)	화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화, 토(2주)	월, 목, 금	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폐고혈압, 심초음파
	김우현	목	화,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동맥정맥) 대동맥질환,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술
	국형돈	화	수, 목	심혈관질환, 대동맥판협착증,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혈중재시술, 경도관대동맥판막치환술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일반 신장질환, 사구체신염, 만성콩팥병, 고혈압, 부종
	이승헌	토(1주)		일반 신장내과질환
	전혜원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부신
	김동선	월, 수, 목, 토(1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수, 금, 토(3주)	수, 목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화, 금, 토(1주)	월, 화	기침, 천식, 알레르기, 약물 부작용, 면역치료
	박동원	월, 목, 토(3주)	수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폐질환
	이 현	금, 토(4주)	화,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암, 간질성폐질환, 결핵
	김보근	화, 수, 토(2주)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백선영		수, 목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박병배	화, 목	목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오석중	화, 수	목, 금	혈액질환
	박권오	월, 목	화	혈액질환
감염내과	배현주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금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진남	수, 목	월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윤초석		목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이영호	월(구리), 화(세포치료), 목	화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암, 고형암
	오재원		월	소아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소아 호흡기질환
	김용주	화금(내시경), 토(1,4주)	월, 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간-췌-담도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내시경치료
	양 승	목, 금, 토(2,4주)	화, 목, 금	성장장애, 성조숙증, 갑상선질환, 당뇨, 비만, 희귀유전질환, 희귀대사질환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문진화	수	수	두통, 뇌전증, 열성경련, 어지러움, 영유아발달평가, 발달검사, 발달지연, 뇌염 소아뇌파, 신경질환
	이현주	목,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안지혜	수	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나재윤	월, 수, 목 토(1, 3주)	화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가와사끼병, 소아 중환자
	최진주	화	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수(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이상운동장애 초진), 목▲	화,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 (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월, 금, 토(1주)	월, 수	뇌졸중, 경동맥협착,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오기욱	수(루게릭)▲, 토(2주)	월· 수▲(루게릭), 목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목, 토(2주)	월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성원재	월금▲, 화, 토(1,3주)	월▲	일반 신경과질환
	정 수	목, 토(3주)	월, 화,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용성	수, 금▲, 토(4)주		일반 신경과질환
	김현기	수▲, 금, 토(3주)		일반 신경과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김석현	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양극성 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김인향	월, 수, 토(4주)	수, 목, 금	소아정신의학,소아/성인 ADHD,발달지연
피부과 2290-8434 레이저 클리닉▲	고주연	월(류마피부과), 화,금,토(2주)	월, 금▲ (1,3주)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월, 수▲, 목, 토(4주)	화, 수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주민숙	수, 목, 토(1,3주)	월, 목, 금	일반 피부질환
	김나영	월, 화, 목	목	
외과 2290-8444	상부위장관 하태경	화	월(비만),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상부위장관 이주희	월, 목	목	위암, 위장관질환, 탈장복강경, 로봇수술
	혈관 최지윤	화	수, 금	혈관외과, 신장이식, 지방종
	췌장, 간담도 이경근	목	화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췌장, 간담도 최동호	수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췌장, 간담도 김경식	금	수	담낭, 간암, 복강경수술, 간이식
	췌장, 간담도 정윤경	월, 화	목	간, 담도, 췌장, 간이식, 복강경수술
	하부위장관 안병규	월, 수	수	대장(직장)암, 항문 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하부위장관 박성실	화	금	대장암, 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지방종, 복강경 탈장수술
	유방, 갑상선 정민성	목	월, 목(맘모톰 시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유방, 갑상선 차치환	수, 금	화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소아외과	손준혁	금	화	소아탈장, 소아복강경수술, 선천성소화기 기형, 항문직장기형(쇄항), 선천성 거대결장, 소아종양, 설소대, 소아변비, 단장증후군, 소장재활, 지방종
흉부외과 2290-8461	김 혁	수	월, 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수술, 선천성 심장질환
	장효준	월, 수, 토(2,4주)	목	폐암, 식도암, 기흉, 다한증, 흉강경수술, 하지정맥류
정형외과 2290-8473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금	월, 금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골절, 외상, 골반골절, 다발성 손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월, 금	수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성훈	수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배근형	토	화, 금	소아정형외과

* 2023년 6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경추클리닉	백광흠	월, 수, 토(2주)		요통, 디스크(머리,허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3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목▲, 토(1주)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해 외 연 수		
	나민균	화, 금	수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한명훈	금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 TX)
	고신웅		목, 금	응급실 통해 온 두부외상 환자 f/u 진료
성형외과 2290-8560	김연환	화, 목	화	상하지재건, 화상 및 외상후 재건, 욕창, 골수염, 미용성형(코)
	박성오	월, 수, 토(4주)	월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장란숙	월, 금, 토(1주)	목	소아성형,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골수염, 만성창상, 액취증, 지방흡입, 미용성형
	김효성	화, 토(3주)	수, 금	미용성형, 양성종양, 만성창상, 욕창
	이영만	목	화	두경부 종양 및 연부조직조양, 욕창 및 만성 창상, 안면부 외상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월, 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화, 목, 토(5주)	화, 목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목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화,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금지현	월수,토(1,3주)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임한웅	수, 금	월	성인사시, 마비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안성준	화, 금, 토(1주)	화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이원준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김유정	월, 토(3주)	수, 목	각막질환, 건성안, 류마티스안과질환, 쇼그렌증후군
	김지홍	월, 목, 토(4주)	목	망막, 유리체 , 포도막, 일반안과질환
	권현윤	토(5주)	금	
이비인후과 2290-8580	김경래	목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암, 후두암, 구강암, 로봇수술, 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금, 토(1주) (수면클리닉)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화, 목	화, 목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정재호	목	월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변하영	화, 토(4주)	화(어지럼증 클리닉),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 귀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최해원	수, 금, 토(2주)	목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희령	토(3주)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소아 비뇨기과
	조정기	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해 외 연 수		
	정규환	수, 금	수, 금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김준엽	월(루게릭), 화, 목, 토(1주)	월(루게릭), 목, 금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이상운동), 암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박혜진	월, 화, 금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수		RI치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황경균	월, 화, 목, 토(2주)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토(4주)	화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수, 금, 토(2주)	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정혜전	월, 목, 금, 토(4주)	월, 목,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임승원	월, 수, 목, 토(4주)	월, 수, 목	심미교정, 수술교정, 투명교정, 성장기교정, 성인교정
	인희진	월, 화, 목, 토(2주)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일반보철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가정의학,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만성피로,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이수진	월	월, 수(2,4주)	산업재해, 업무상 질환, 직업 및 환경성 질환
	송재철		화, 수(1,3,5주)	산업재해, 업무상 질환,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인아	월, 화	월, 화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민지희	목	수, 목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1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성인형스틸병, 염증성근염, 골관절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2주)	화(경피증클리닉), 목, 금	통풍, 경피증(전신경화증), 레이노현상, 류마티스관절염, 재발성류마티즘
	김태환	화-목, 토(2,4주)	월, 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금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쇼그렌병,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최찬범	화, 수, 목, 토(1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 루프스, 골관절염
	조수경	월, 수-금, 토(3주)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염증성근염, 통풍
	남보라	화, 금, 토(2주)	월,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송여진	월, 수, 목, 토(1주)	수,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용범	토(3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한정용	금, 토(4주)	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발크리닉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재활
통증의학과 2290-9216	김초롱	화, 금	화,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급만성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인공슬관절전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골관절염, 인대손상, 관절연골손상
	이봉근		목	화전근개 질환, 류마티스질환, 견주관절크리닉
	최성훈	월		경추크리닉(목디스크,골절),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류마티스 안과	김유정	목(1, 3, 5주)	월	쇼그렌 증후군, 강직척추염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관련 건성안, 공막염, 포도막염, 백내장, 각막질환, 콘택트렌즈
	안성준	목(2, 4주)		망막, 유리체, 황반변성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월		류마티스 피부질환
류마티스 예방접종 클리닉	김봉영		화(3,4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김진남		화(1,2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윤초석		화(5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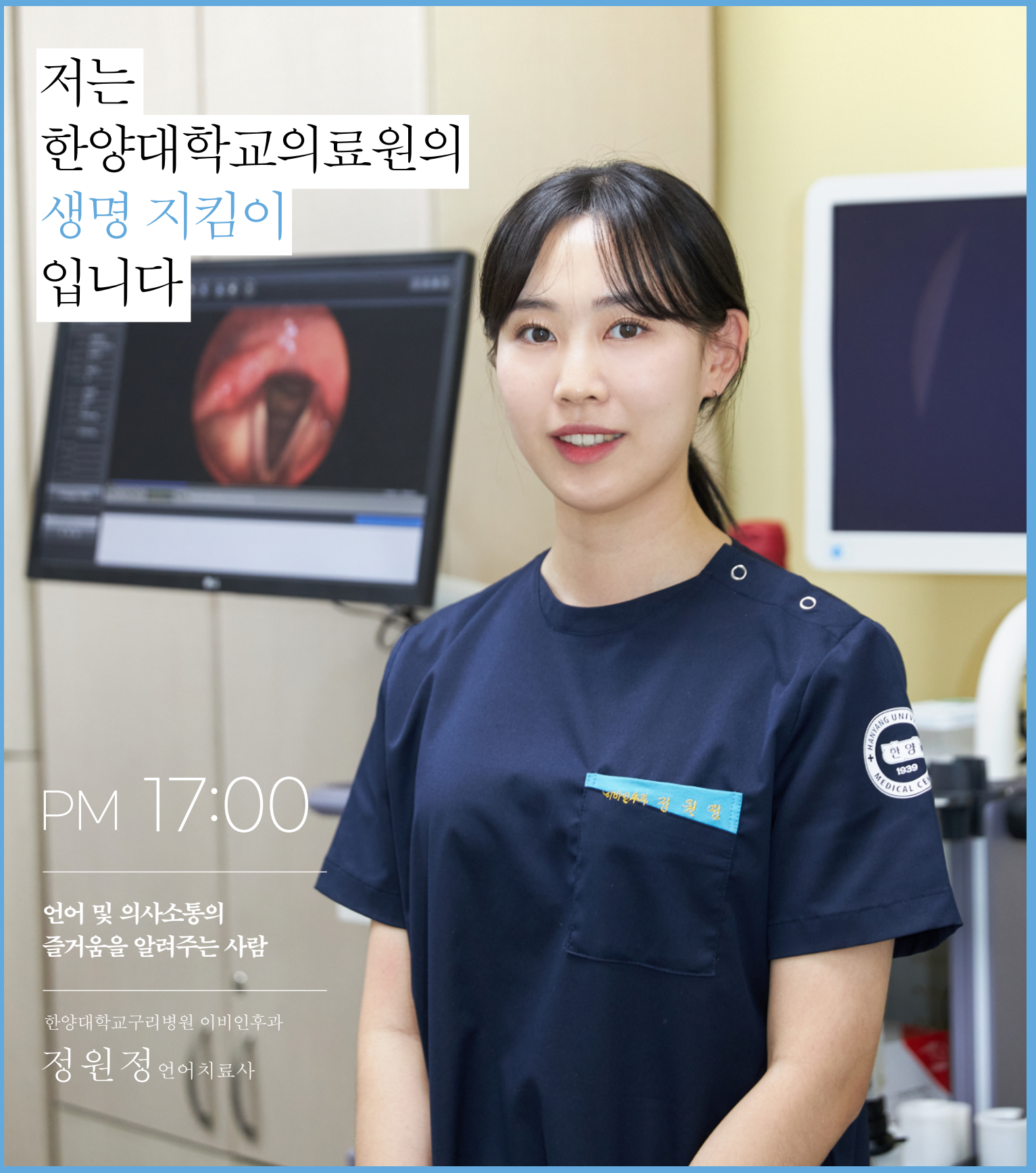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센터 2290-9550	임영효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대동맥및말초동맥질환,심혈관중재술, 성인성천성질환
	박훈기		화, 수	가정의학,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주)	금	평생건강관리, 비만치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3년 6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간질환, 바이러스간염, 간경변증(간경화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장질환, 대장암, 기능성위장관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토(2,4주)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박찬혁	목	수, 금	위·식도역류질환 위염 및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위암, 식도암, 치료내시경
	안지현	수, 목	화, 금	각종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암,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주현돈	월	목	췌장 담도 질환, 담석증,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오은혜	출산휴가		위식도대장질환 대장용종 위용종 식도용종 염증성 장질환 위대장내시경 지초내시경
	정병욱	수, 금, 토(3주)	화	위대장질환 위대장소장내시경 용종절제술 위암대장암 내시경절제술 염증성장질환
	김하일	월, 화, 금, 토(1주)	수	각종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암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심장내과	박환철	화, 목, 토(1주)	수	부정맥(심실심방 빈맥, 심방세동) 진단(전기생리학검사) 및 치료(고주파전기자극절제술 및 약물치료), 인공심박동기 및 체내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일차적 관동맥 중재시술) 및 일반적인 허혈성 심질환(불안정형 혹은 안정형 협심증) 진단 및 치료(스텐트 삽입술)
	김병식	월, 수, 토(2주)	화, 목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 중재 시술,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3주)	월,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말초혈관 질환 및 중증 하지 허혈 질환
	김현진	목, 금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김옥동	월, 수	목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신장내과	한상웅	월, 수, 목	화(클리닉 3, 4, 5주)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유미연	화, 수(클리닉), 토(4주)	월, 목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지원	목, 금, 토(2주)	화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선민	토(1주)	수,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금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갑상선, 골다공증
	유성훈	월, 목, 토(2주)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비만
	홍상모	화, 금, 토(1주)	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비만
류마티스내과	이혜순	월,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전신경화증(경피증), 섬유근통증후군, 레이노증후군
	방소영	화, 금, 토(2,4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전신경화증(경피증), 섬유근통증후군, 레이노증후군
	주영빈	월, 화, 목, 토(1,3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3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문지용	화, 금, 토(1주)	월,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기침 폐렴,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인공호흡기, 패혈증, ECMO, 중환자초음파,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호흡기질환(폐렴/폐결핵/폐색전증), 기침/호흡곤란/객혈, 기관지내시경
	여유미	수, 금, 토(2주)	월,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중환자실 내과계	박태선	월~금	월, 화, 목, 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인공호흡기, 패혈증, ECMO, 중환자초음파,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호흡기질환(폐렴/폐결핵/폐색전증), 기침/호흡곤란/객혈,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실 외과계	김현일	월~금	화, 수, 금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소장, 탈장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2,4주)	월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원영웅	월, 수, 금	화, 목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완화의료, 백혈병, 골수형성이상
	허준영	월, 화, 토(1, 3주)	수, 목, 금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직장)암, 기타 전이암/재발암, 완화의료,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기타 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수, 목, 토(2,4주)	월,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김진영	화, 토(1,3주)	수, 목,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금	화	신생아/미숙아/영아(건강상담, 호흡기증상, 분만손상, 황달, 수유/영양장애, 발열, 설사, 발진, 성장발달), 예방접종 및 육아상담
	오재원	수, 금, 토(3주)	수	소아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소아호흡기 질환
	문진화	월, 화	월, 목	소아신경질환, 소아뇌파, 경련, 열성경련, 뇌전증, 뇌염,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발달검사,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세포치료
	최영진	월, 화, 목, 토(2주)	월, 목	소아알레르기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아나필락시스, 크룹, 모세기관지염, 폐렴
	최윤수	목, 토(3주)	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토(4주)	화, 금	소아응급 및 일반질환, 소아알레르기호흡기질환 (수, 금요일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응급실 직접진료)
	박민정		화	소아알반질환, 소아신경질환
	냐재윤	금	금	소아청소년 심장 및 혈관질환, 가와사끼병, 부정맥, 실신, 성인 선천성 심장병, 소아청소년 고혈압, 소아응급질환, 소아중환자의학
	황제균	월, 수, 토(1주)		신생아, 미숙아, 영아, 예방접종 및 육아상담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뇌혈관질환, 파킨스병, 어지럼증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4주)	월, 목	치매, 두통, 어지럼증
	권혁성	수, 토(1,3주)	월,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이용경	월, 토(2주)	금	일반 신경과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김대호	화, 목	월, 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수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박선철	수, 목, 토(1,3주)	월, 목	우울증, 불안증, 노인정신의학
	김일빈	월, 화, 토(2,4주)	수, 금	일반 정신의학,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산부인과	류기영	월, 화, 목, 토(1주)	화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수(부인암클리닉)	부인암(자궁암 난소암, 단일골반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혹), 고위험산모, 갱년기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정진환	월, 토(1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동맥류수술, 뇌혈관내수술(뇌혈관내수술인증의), 두부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류제일	화, 수, 토(4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수술, 척추내시경), 척수종양, 척추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한명훈	월, 목, 토(3주)	수	뇌종양, 뇌정위기능, 노발리스방사선수술(뇌종양,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원유덕	금, 토(2주)	월, 수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기형, 혈관내수술, 뇌외상
	하병진	목	월, 화	척추질환, 신경계 외상, 척추내시경
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심장판막질환,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정맥류,말초동맥질환,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최수환	월, 수	월,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기흉, 대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정형외과	박예수	월, 수, 금		퇴행성 골다공증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및 강직성척추염 척추손상, 경추질환 및 척추관협착
	박기철	수, 금, 토(2주)	월	외상클리닉(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골다공증 골절 불유합 및 골수염
	정규성	화, 토(4주)	수, 목	무릎관절, 스포츠손상(인대 및 연골), 관절염 및 인공관절수술
	조영훈	화, 목, 토(1주)	월	견주관절, 관절경, 스포츠손상,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골절 및 외상
	이영석	월, 토(3주)	화, 금	수부미세수술, 류마티스 수부질환, 손목, 팔꿈치 관절경
성형외과	최승석	월, 금	수	말초신경수술, 수부재건, 유방성형, 당뇨발, 욕창
	유재만	화, 목, 토(1,2,3,4주)	화, 목	일반 성형외과
	정재아	수	월, 금	유방 재건 및 성형, 흉터 성형, 당뇨발, 미용 성형
외과	박훤겸	월, 목	화	간담췌외과/복강경수술, 졸기세포 치료 및 연구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김민규	화, 수	월	복강경수술, 위암, 위궤양, 비만 및 대사질환, 소장, 탈장
	김형석	월, 목, 토(1,2,3,4주)	월(유방클리닉),화	유방갑상선외과(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이준호	수	월, 수	대장외과(대장, 소장질환)
	김현일		목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소장, 탈장
	조유정	화, 금	수	소아외과, 소아복강경수술, 소아탈장, 소아외과질환, 성인탈장
	황성환		금	항문질환, 일반질환
안과	조희윤	화, 목	화(주사클리닉),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녹내장클리닉)	월, 수	녹내장, 고안압증, 백내장
	강민호	월, 토(1,3주)	화, 목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합병백내장, 인공수정체, 탈구, 시각장애인스포츠
	홍은희	목, 토(4주)	화, 금	신경안과, 사시, 소아안과, 저시력, 신경망막염, 성형안과, 눈물길 클리닉
	황선진	월, 금, 토(2주)	월, 목, 금(클리닉),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김두루	수	금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합병백내장
피부과	김정수	월, 화, 목, 금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 및 사마귀성 질환, 건선
	서현민	수, 토(1,2,3,4주)	월,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자가면역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비과(코질환) :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수술,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화	두경부종양(구강, 인두, 후두, 침샘), 갑상선종양, 내시경갑상선 수술, 경부종양, 음성질환(목쉼, 성대결절), PITA 편도절제술(무통편도수술)
	정재호	금	수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서희원	목, 토(1주)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유병준	토(3주)	월, 화, 금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이하나	화, 수, 토(2,4주)	목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비뇨의학과	문홍상	수, 목, 토(3주)	월, 목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및 요실금, 과민성방광, 노인비뇨의학
	이승욱	월, 화, 금, 토(1주)	화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복강경수술, 남성과학
재활의학과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 재활, 보행분석, 족부질환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 재활(오십견 등 어깨, 팔꿈치, 손, 허리, 목, 엉덩이, 무릎, 발 통증), 소아재활, 스포츠의학, 뇌신경재활, 심킨장애
	박재현	월, 수	금	근골격계 질환(어깨통증, 무릎통증, 허리통증, 목통증)의 재활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
치과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1,2주)	수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턱관절 질환
	김윤영	화, 금, 토(3,4주)	월, 화, 목, 금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양우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인터벤션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박종은		목	유전성 여성암(난소암, 유방암) 유전상담
마취통증의학과	일반		목	당일수술 마취전처치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급 · 만성 통증관리 및 치료
	박형준	화, 목, 토(1,3주)	화, 수, 목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관절류마티스클리닉	이혜순	금, 토(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방소영	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전신경화증(경피증), 섬유근통증후군, 레이노증후군
	주영빈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발걸음 클리닉	장성호	목, 토(4주)		어깨통증, 뇌졸중재활, 관절염, 장애판정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화, 토(2주)	목	근골격계 질환(어깨통증, 무릎통증, 허리통증, 목통증)의 재활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제일		화	척추질환 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통증심리 클리닉	김대호		수	통증 스트레스 상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 음성, 말소리, 읽기, 쓰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성인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 재활을 도와주는 전문가, 정원정 언어치료사. 소통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재활을 통해 조금씩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쁘다는 그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많은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을 선물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